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45호
2023년 1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계묘년을 맞아 '깡충'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다. 옛부터 지혜와 장수, 풍요를 상징한다. 장애물도 훌쩍 뛰어넘는 영특한 동물이어서 위기를 딛고 일어설 때 흔히 인용된다. 한국우주산업의 개척자 황보한(공대 56) 동문이 토끼의 해를 맞아 본보에 유화 한 점을 보내왔다. 황보박사는 은퇴 후 미국에서 화가로 제 2의 삶을 살고 있다. <관련기사 15·16면>

노명호 미주동창회장 신년사 '지속가능한' 동창회 만들기에 힘쓸 터 한인사회 아웃리치 프로그램 적극 시행



노명호
공대 61
제 16대 미주동창회장

서울대학교 미주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여 서울대 미주동문님들에게 새해인사 올립니다.

2021년 7월 1일에 시작된 저의 16대

미주동창회장 임기가 18개월이 지나고 이제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후배 동문님들이 격려의 말씀, 동창회비, 특별 후원금, SNUAA Scholars 장학금, 종신이사비, 또는 회보광고로 미주동창회를 후원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물심양면으로 미주동창회를 도와주시는 한국의 김종섭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 미주동창회사업으로 10명의 장학생들(SNUAA Scholars)을 선발해서 1인당 1만달러씩 모두 10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난해 6월 평의원 회의에서 수여했습니다.

커뮤니티 아웃리치(Community

Outreach) 차원으로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후원금 1만6,000달러를 유니세프(Unicef)를 통해 보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미주동창회 지부 관악연대 활성화를 위해 10개 지부에 총 2만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미주동창회 업무중 제일 어려운 일은 매월 회보를 제작 발행해서 동문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창회가 성장해서 Banking과 재무에 관한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16대 임원들, 특별히 편집고문, 총무국장, 그리고 재무국장에게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미주동창회가 당면한 과제가 많습

니다. 무엇보다 미주동창회의 Long-term Sustainability 및 Century Foundation Fund의 대책과 용처를 논의하고 아울러 젊은 동창회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시작된 SNUAA Scholar Program의 장기계획을 포함해 어떻게 미주동창회가 지역사회 Outreach를 의미있게 해야할지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과제들은 오는 6월에 계획된 제 32차 평의원회의에 선별 논의할 계획입니다.

서울대 미주 동문 여러분,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원하시는 일이 성취되는 2023년 계묘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울대인의 긍지는 동창회비납부에서부터”

금난새와 함께 '디즈니 평화 음악회'
관련기사=5면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임기 마치는 오세정(물리71-75) 총장 역대 총장 가운데 가장 미주친화적 ‘호평’ 미주 동창회 평의원회의, 이음 음악회 등 행사 참여

오세정 총장이 1월말 4년의 임기를 마친다. 임기중 절반을 코로나로 보냈지만, 서울대의 발전을 위해 크고 작은 성과를 이뤄냈다.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는 물론 이음 음악회 등 크고 작은 미주지역 행사에도 자주 참여해 역대 총장 가운데 가장 미주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QS세계대학평가에서도 29위를 차지하면서 처음으로 30

위권 내에 안착시켰다. 무엇보다 서울대 중장기 발전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해 미래 청사진을 마련한 것은 평가할 대목이다. 외형적으로 볼 때 서울대 정문광장, 본관 잔디광장을 탈바꿈시켰고, 문화관 재건축 예산도 확보했다. 지난 4년간의 소회와 서울대의 과제에 대해 물었다. - 편집자.

-4년간의 소회를 들려주세요.

“저는 지난 50년 동안 서울대와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서울대 생활이 끝나거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2년 반은 코로나 때문에 대외 활동을 많이 못하고, 정상화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어요.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대학교육이 수요자인 학생 위주로 흘러가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니다. 그동안 대학 교육이 공급자 위주로, 교수 위주로 흘러왔죠. 학생들에게 선택권도 주고 넓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행되기는 쉽지 않았지만, 학과간 장벽을 낮추고 복수전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했습니다. 팬데믹 동안에 배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해도 온라인 교육을 서로 부담스러워 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울대 총장은 어떤 자리라고 생각되시나요.

“과거 서울대 총장은 지성의 상징, 대표라는 분위기가 강했죠. 지금은 신문에서도 전혀 그런 얘기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서 서울대 총장뿐 아니라 대학총장을 경영자, 돈을 많이 모아오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경향이 커진 것 같습니다. 서울대의 경우 다른 대학에 영향을 미치니까, 뭔가를 결정하더라도 사회의 관심이 크고,우리도 뭔가를 결정할 때 숙고하게 됩니다.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 한국의 대학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4년 전 후보시절 여러 공약을 하셨는데, 공약이행에 대해 자평을 해주십시오. 서울대 법원화법 개정을 통해 면세 지위를 다시 찾은 것은 큰 성과라 보는데요.

“(2019년)2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1월에 대법원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이 난거예요. 이거 가만두면 매년 100억~200억원이 나가게 생겼어요. 또 시흥캠퍼스 소유권이 넘어와야 하는데 그림 취득세만해도 몇백억인거죠.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지방세 내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교육부에, 일본 도쿄대는 법인화 하면서 면세조항을 다 넣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하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개정해 달라했더니 힘이 없어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하다 나온지 얼마 안됐고, 국회 시스템을 알아서 1대1로 의원들을 만났어요. 기재부, 행안부 관계자들도요. 전 구성원이 전방위 노력을 해서 결국 면세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 국가미래전략원도 공약 중 하나였죠? “우리나라에 믿을 만한 싱크탱크가 없

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KDI를 싱크탱크라 볼 수 있지만 정부기관이라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고, 삼성에서 경제연구소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거기 역시 객관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요. 학교는 각계 전문가도 많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 우리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사회과학대학에 연구소들이 많이 있었고, 대학본부 차원의 국가정책포럼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걸 연장하면서 본부 산하로 두는 국가미래전략원을 신설했죠. 반기문 전



“평창 시니어타운… 잘 진행될 것”
바깥에서 서울대 보는 눈은 ‘냉랭’
엘리트 의식 못지 않게 책임감 중요

유엔사무총장님을 명예원장으로 모시고요.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화예술원을 만들었습니다. 취임 첫해 졸업식축사 연사로 방시혁 의장을 불렀거든요. 고사하는 걸 설득해 단상에 모셨습니니다. 서울대도 엄숙주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대중문화예술계 인물들과 교류해야 하고, 그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지였죠. 서울대도 대중문화를 지원하고 연구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융합형 인재양성에 관심을 쏟으셨다고 하셨는데, 인재 양성의 방향이라면.

“지금까지 교육은 산업시대의 일꾼을 양성하는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죠. 해당 전공분야의 지식을 많이 가르쳐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만드는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보니 전공필수 과목도 많았고요. 앞으로 사회는 대학에서 배운 전공으로 써먹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융합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습니니다.

학과 위주의 제도를 깨야 하는 데 서울대가 무전공으로 뽑기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보호 학문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은 일단은 과를 선택해서 입학하더라도,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공지원설계센터를 만들어서 어려움 없이 복수전공을 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과에도 전공필수 과목을 줄이고 다양한 학문을 접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리학과에 들어왔지만 인문, 예술과도 접점을 찾는 인재로 커 나갈 수 있도록 해야

이곳에서 하기 어려운 실험들, 가령 무인이동체 실험들이 시흥에서 가능합니다. 시흥은 공학과 의학 위주의 캠퍼스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평창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질 것으로 봅니다. 이 둘은 서울대의 미래를 위해서 엄청나게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동창회에서 추진하는 ‘평창 시니어타운’ 계획이 지자체장이 바뀌고, 강원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고, 서울대병원장이 사실상 공석이 되면서 정체돼 있지만 언젠가 실현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빨라지기도 늦어지기도 하는데, 저는 결국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 총장 선출제도에서 외부인사의 후보 진입이 어렵다든가, 총장 연임이 사실상 제한됐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장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총장 선거 규정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임기가 끝날 때 하면 후보자들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복잡해지기 때문에 오자마자 바꿨거든요. 그때 외부 초빙인 한 사람은 무조건 (총장후보로 등록한 인사들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5인 후보그룹에 넣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지금은 총장 연임제도도 6개월 전에 그만둬야 한다는 것을 총장은 결정될 때까지 직무대행을 두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다음 총장부터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지금 평의원회에 개정문건이 가 있는 데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정치할 생각이 또 있으신가요.

“정치가 싫어서 나왔는데(웃음). 물론 국회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지요. 기억나는 것 하나가 처음 국회에 갔을 때 서울대 얘기하면 반응이 그렇게 냉랭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서울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서울대와 서울대인의 공공성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가 정부에서 받는 돈이 있고 사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그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니다.

그 대학의 학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같이 다니다 보면 몸에 배는게 있을 거 같아요. 엘리트 의식 같은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책임감도 느껴야 하죠. 엘리트 의식만 몸에 배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돼요. 앞으로 그런 분들은 만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담=이경형 총동창신문 편집인

죠.”

-기숙 대학 RC(Residential College)를 도입한다고 들었습니다.

“RC가 왜 중요하냐면, 앞서 얘기한 대로 대학이 지식만 배우는 거라면 집에 있어도 되지만, 서로 만나 얘기하고 아이디어 얻고, 또 전공이 다른 친구들과 교류하면 보는 시각이 넓어지니까 그런 면에서 중요하거든요. 또 요즘 학생들이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연세대 송도캠퍼스 RC를 보면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마침 관악캠퍼스에 오래된 기숙사 여섯 동이 리모델링할 때가 됐어요. 공간을 늘리면 1학년 학생은 충분히 RC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한 개동에 1학년중 신청자를 받아 시범사업을 합니다.”

-총동창회에서 지난 6월 평창캠퍼스를, 11월에는 시흥캠퍼스를 다녀왔습니다. 이 두 캠퍼스를 잘 활용하면 재정확충이나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 등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시흥은 병원이 들어오면 바이오메디컬 벤처타운이 형성될 겁니다. 관악캠퍼스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1월 12일 LA ‘작가의 집’에서 열린 남가주 총동창회 이사회에 참석한 동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아래 왼쪽은 박제환 이임 회장, 아래 오른쪽은 김경무 신임회장. 이날 모임엔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50여 명이 참석했다.

남가주총동창회 신임회장 김경무(공대 69) 동문 취임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박제환)의 리더십이 바뀐다.

총동창회는 지난 1월 12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김경무(공대 69) 동문의 제 48대 회장 취임식을 공식화했다. 김 동문은 오는 2월 4일(토)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하며 이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역대 회장 등을 비롯해, 50여명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이임하는 박제환(문리대 75)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이 적지 않았지만 임원진의 노고에 힘입어 계획된 사업들을 모두 소화할 수 있었다”며 그 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지난해 남가주 총동창회가 수행한 주요 프로젝트는 ▲이음 장학금 방문과 ‘포र्ट 데 디 콰트로’ 초청 이음 음악회 ▲헐리웃볼 가족의 밤 ▲와이너리 테마 여행 ▲음대와 동문합창단 공연 등이다. 특히 12월 4일 열린 제 1회 관악인비테이셔널 골프 토너먼트는 60여명의 ‘관악세대’ 동문들이 참석, 화제를 불러모았다.

김경무 신임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동문 초청 골프대회(5월 4일,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 ▲미대 작품전 및 옥션(5월) ▲헐리웃볼(8월) ▲동문 피크닉(9월 중 부에나파크 랄프 클락 공원) ▲관악연대 골프(11월 4일, 로스 버디스

컨트리 클럽) 등 올해 펼칠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김 회장은 배재현(공대 76) 남가주 공대회장을 총무로 선임했다. 이외에도 김희경(사대 80) 동문을 골프 담당 부총무로 발탁하는 등 임원진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각 단과대학별 지원 내역이 밝혀져 관심을 끌었다. 남가주총동창회에 1만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낸 동창회는 문리대(1만4700달러)와 공대(1만2500달러) 두 곳 뿐이었다.

한편 차기회장 후보에 임춘택(상대 68) 동문이 지명됐다. 임 동문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내년 제 49대 회장으로 확정된다.

총회는 2월 4일 12시 정오 노워크의 더블트리호텔에서 열린다. 총회는 밤운전이 어려운 동문들을 배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낮시간대로 조정됐다.

정기총회 일정
▲일시: 2월 4일(토) 12시 정오
▲장소: 노워크 더블트리호텔
1311 Sycamore Dr., Norwalk
▲문의: 배재현 총무
213-210-1110 또는
kyungmookim@yahoo.com

차기 미주동창회장 신년사 “평의원 회의는 동창회 발전의 시금석” SNUAA 스칼라, 이음 장학생 등 시행



이상강
의대 70
차기 미주동창회장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제 16대 미주 동창회장의 중책을 맡게될 이상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힘들고 또한 움츠러 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의 모든 규제에서 풀리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동문님들께서도 더욱 활동적인 생활을 누리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동창회에서는 올해 여러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는 6월 28일 미주 동창회가 주관해 진행할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평화 음악회입니다.

음악회는 본국의 김종섭 서울대총동창 회장께서 경제적인 도움은 물론 행사 진행과 관련해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성사됐습니다. ‘마에스트로’ 금난새(음대 66) 동문이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게 돼 기대가 자못 큼니다.

세계적인 공연명소인 LA의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열리는 음악회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주한미군으로 근무한 미국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한국에서 군복무를 한 미국인들은 3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반도평화 구축의 염원을 담아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동문님들의 많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뭐니뭐니해도 미주 동창회의 올해 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는 6월 평의원 회의 개최일 것입니다. 동창회 최고 의결기구로 전국에서 전현직 회장들을 비롯, 종신이사들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올해 평의원 회의는 향후 동창회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창회비 납부율도 짚고넘어 가야 하겠습니다. 회비가 동창회의 주된 운영자금인 바 아주 저조한 납부율로 인해 재정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몇몇 동문들의 기부금으로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가정형편이 넉넉지 못한 서울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음 장학금의 미국방문에 많은 동문들이 도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음 장학금 프로젝트는 올해도 추진할 것입니다.

작년 발족한 SNUAA Scholar 프로그램은 10만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한인 대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홍택(공대 60, UCLA 석좌교수) 고문님과 노명호 회장님의 거액 기부 등으로 이 프로그램은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올해 역시 계획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동창회관 설립과 동창회보 발간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과 토론을 기대합니다. 매 2년마다 회장 출신 지역에서 관장하다 보니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일각에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평의원 회의에서 동문님들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새해를 맞아 동문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번창하시고 아울러 동창회에 대한 서포트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희망찬 미래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창업 라운드테이블’ 박상래 동문 한국군에 첨단무선기기 납품 ‘개가’

미주 동창회 창업모임(Entrepreneurship Roundtable) 회원인 박상래(공대 87) 동문이 최근 한국군에 첨단무선기기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개가를 올렸다.

박 동문은 육군헬기 200여 대에 자사가 개발한 동영상저장 및 무선전송 시스템 납품업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본보에 알려졌다.

박 동문에 따르면 해군이 보유한 헬기 80대에도 곧 자사 제품이 장착된다. 이에 따라 박 동문은 한국의 육해공군 모두에 자사개발 제품을 납품하게 됐다.

박 동문은 워싱턴주 시애틀의 김성열(치대 61) 동문의 투자를 받아 인력을 확보하는 등 회사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다.

중견 벤처기업인 ‘스타넥스’를 운영하고 있는 박 동문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버라이존과 T-모빌, 스페이스-X 등과 같은 미국의 통신 및 위성업체들과도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주 동창회의 창업 라운드테이블은 매월 두번 째 화요일 오후 6시(서부시간) 줌으로 열린다.

의대 학술대회 3월30일 세리토스

의대 동창회(회장 전경배)가 주관하는 제 38회 학술대회가 오는 3월 30일(목)부터 4월 2일까지 남가주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 동창회의 임원진은 물론 교수진도 참여, 더욱 알차게 진행된다.

▲장소: 세리토스 세라톤 호텔
12725 Center Court Dr., Cerritos
▲문의: 562-697-6070
kbchon@hotmail.com

도움이 필요하세요?

구독문의 · 주소변경 · 기사제공 · 광고게재 · 동창회비 납부 · 후원금 등 동창회 관련 모든 문의를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이호진(간호대 74) · 미주 동창회 총무국장
818-321-2214 | leeheidi2214@gmail.com



멋지게 세팅된 테이블에 24명 전원이 모여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 장면.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도 모두 참석해 남다른 동문애를 과시했다.

남가주 간호대 신년하례식 폭우·홍수 경보에도 전원 참석 양수진 회장 1천불 '통 큰' 기부

“전원 참석할 줄이야...”

지난 1월 14일(토) 남가주 간호대 동창회(회장 양수진) 신년하례식은 폭우가 쏟아져 홍수 경보가 발령되는 등 최악의 상황에서 열렸다. 그럼에도 당초 참석을 약속한 동문 24명이 모두 나왔다.

장소는 멋진 테이블 세팅이 마치 결혼식 피로연에 온듯 착각을 일으키게 준비한 양수진 회장의 라미라다 자택. 총회를 겸해 열린 이날 신년 하례식의 하이라이트는 회장 선출이었다. 4년 연임을 한 양 회장이 후임 선출을 강력히 요구해 이종묘 동문이 임기 2년의 새 회장에 뽑혔다.

점심 식사에 이어 열린 2부순서는 한마디로 폭소 대잔치. ‘스팟 잇(Spot It!)’ 게임과 ‘빨리 일어나기’ 등 여흥을 즐겼다. 요즘 MZ 세대에게 가장 인기있는 게임인 ‘스팟 잇’은 박인희 동문, ‘빨리 일어나기’는 이안순 동문이 각각 우승해 소정의 상금을 받았다. 가장 학년이 높은 조총자 동문은 노래를 선물하며 젊음을 과시했다.

경품 추첨의 최고 인기 품목은 서울대 로고가 부착된 고급 가죽백. 100달러 상당의 가죽백은 양 회장이 10개를 자비로 구입해 경품으로 내놔다. 이외에도

홍삼 정관장, 고급 화장품과 Laderach 등 상품이 푸짐해 참석자 전원에 최소 하나씩 돌아갔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모임은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끝날 만큼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집에서 이렇게 잘 준비하기도 힘든데, 비 오고 추운 날 정말 따뜻하고 좋은 시간이었다”며 양 회장의 세심한 배려를 고마워했다.

양 회장은 “지난 4년 동안 회장직을 무탈하게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 선·후배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종묘 새 회장도 “동창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장직을 내려놓은 양수진 동문은 가죽백 외에도 1,000 달러를 선뜻 동창회 후원금으로 내놔 감동을 줬다.

한편 이날 참석한 간호대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괄호한 숫자는 학년).

조총자(61)·박인희(67)·이화숙(67)·김순원(68)·강춘자(69)·김영옥(69)·김정애(69)·박혜옥(69)·손선행(69)·유찬주(69)·이용주(69)·이종묘(69)·김상주(70)·박선희(70)·김영옥(72)·장동옥(72)·정혜령(72)·최정희(72)·이성자(74)·이호진(74)·이안순(78)·남영림(80)·양수진(80)·이은경(80).



▲ 서울대 로고가 부착된 고급 가죽백.

◀ 양수진(오른쪽) 회장과 이종묘 신임 회장.

동창회장은 공대가 ‘압도적 다수’ 전국 27개 지부 중 무려 11곳이나 70~80 학번으로 세대교체 ‘뚜렷’



지난해 12월 4일 LA 인근의 로스 버디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 1회 관악 인비테이셔널 골프 토너먼트의 뒷풀이 모습. 각 지역 동창회의 회장단이 점차 관악 세대로 교체되고 있다.

새해들어 남가주를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 동창회의 회장이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이다.

남가주 총동창회는 2월 4일자로 박제환(문리대 75) 동문의 임기가 만료되고 김경무(공대 69) 동문이 새 회장으로 취임한다.

뉴욕은 오는 7월 김영천(약대 72) 회장에 이어 연영재(공대 74) 동문이 동창회를 이끌게 된다. 시카고는 김승주(간호대 69) 동문 후임으로 황치룡(문리대 65) 동문이 회장직을 이어 받았다.

뉴잉글랜드는 임영호(공대 72) 동문이 올 상반기까지 회장직을 수행하며 하반기부터는 최진민(공대 71) 동문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워싱턴(시애틀) 역시 임현민(공대 84) 동문이 이명자(간호대 74) 동문에 이어 회장직을 인수 받았다.

미네소타의 신·구회장은 농생대 선후배 사이. 차재호(농공학 84) 동문에 이어 용정식(농화학 86) 동문이 회장에 취임했다.

회장이 유임된 곳도 있다. 조지아의 배영혜(음대 78) 동문은 지난 연말 총회에서 유임이 결정돼 회장직을 2년 더 하게 됐다.

이외에도 워싱턴 DC는 박상근(법대 75) 동문에 이어 정세균(자연대 82) 동문이 회장에 선임됐으며 필라델피아도

이종태(사대 71) 동문이 동창회를 이끌게 됐다.

90년대 학번 회장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샌디에고의 유재호(공대 90) 동문과 하틀랜드의 임소연(음대 91) 동문이 화제의 주인공들이다.

한때 주류를 이뤘던 60년대 학번 회장은 남가주와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세곳에 불과하다.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의 차기회장은 그러나 70년대 학번이 물려받게 돼있어 내년에는 거의 전 지부에 걸쳐 세대교체가 이뤄진다.

캐나다도 젊은 세대로 리더십이 교체될 전망이다. 장희순(문리대 75) 밴쿠버 회장은 올해부터 관악연대 출신들이 동창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해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단과대 별로는 공대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남가주와 뉴욕 등 대도시권의 회장이 모두 공대 출신이다. 차기회장까지 포함하면 미주 동창회 27개 지부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11곳이 공대 출신이다. 이어 농대 출신은 북가주(최경선), 오레곤(박희진), 애리조나(정인주), 미네소타(용정식) 등 4 곳이다.

상대(휴스턴, 커네티컷, 오하이오)와 문리대(시카고, 하와이, 밴쿠버)는 각각 3곳이다. 음대출신 회장은 하틀랜드와 조지아 등 2곳이다.

명복을 빕니다



이순희(음대 48)



김강수(문리대 59)

▲이순희(음대 48)

12월 19일 타계. 경기여고를 졸업, 음대 성악과에 입학한 고인은 뉴잉글랜드 음악원에 유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남가주 음대회장을 지내는 등 동창회 발전에 공이 컸다. 유족은 2남2녀.

▲차응만(의대 58)

12월 24일 타계. 시카고에서 오래 거

주한 고인은 하와이로 은퇴해 만년을 보냈다. 시카고에서도 추모식이 예정돼 있다.

▲김성건(공대 56)

1월 11일 가든그로브 서니사이드 장례식장.

▲정순자(Mrs. 정종현·공대 60)

1월 14일 뉴포트비치 매리너스 처치.

▲김강수(문리대 59)

1월 21일 레이크 포레스트. 재미한인과

학기술자협회(KSEA) 남가주 지부장을 지낸 고인은 UC샌디에고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 보잉사에서 책임연구원으로 30년 근무했다. 고인은 천체물리학의 빅뱅우주론과 구약성경의 창세기의 공존가능성을 주장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저서로 ‘현대과학이 보는 우주’ 등이 있다.

한국전 정전협정 70주년 맞아 ‘금난새와 함께하는’ 디즈니 콘서트홀 평화음악회 6월28일 ... 본국 총동창회 · 미주 동창회 공동주관

오는 6월 28일 LA의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금난새(음대 66) 동문의 지휘로 평화음악회가 열린다.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물론 그동안 한국에 파병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젊음을 바친 미군 병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취지의 음악회다.

지금까지 주한미군 출신의 미국인들은 어림잡아도 3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분담금 인상을 놓고 한국 정부와 실랑이를 벌일 때 한국 측 입장을 지지한 것은 이들 주한미군 ‘전우’들이었다. 이들이 거주지역의 의원들에게 “주한미군은 (비즈니스)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력 항의해 결국 공화당 정부도 분담금 인상의 뜻을 접었다는 것이다.

LA에서 열리는 평화음악회는 본국의 서울대 총동창회(회장 김종섭)와 미주 동창회(회장 노명호)가 공동주관하는 행사다. 서울대 출신도 상당수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남가주 ROTC 동지회도 참여한다. 공연 수익금은 한미동맹재단(회장 정승조 · 사무총장 신경수)에 기부해 미주 주요지역에 지부설치기금 등으로 쓰인다.

김종섭 총동창회장은 한국이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기적을 창출해낸 것은 오롯이 주한미군의 존재 덕분이라며 한미동맹의 초석 위에 또 다른 미러클을 만들어내기 위한 첫 출발점으로 금난새 동문과 손 잡고 디즈니홀 평화음악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이제는 글로벌 무대에서 공연할 때가 됐다고 첫 행사를 한미동맹으로 잡은 것은 유의미한 사건이라고도 했다. 본보는 금난새 동문과 영상인터뷰를 갖고 음악회에 얹힌 뒷 얘기를 들어봤다. - 편집자.

- 어떤 계기로 디즈니홀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까?

“김종섭 총동창회장의 권유로 갑자기 공연스케줄을 잡게 됐어요. 올해가 종전 70주년이라든가 뭔가 뜻깊은 연주회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해보

자고 했습니다. 우리 서로 뜻이 통한다고 할까요. 시쳇말로 죽이 잘 맞아요.”

지난해 김 동문이 총동창회장이 되자 ‘제 1회 서울대학교 가족음악회’를 열었다.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린 이 행사엔 1,200여 동문 및 가족이 참석,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김 동문은 재치있는 곡 해설뿐 아니라 연주가 끝난 후 스태프들과 함께 피아노를 밀어 옮기는 등 소탈한 모습을 보여 동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행사를 함께 치렀다. 지난해 10월 홈커밍데이 때는 미국에서온 동문들을 특별 초청, 음악회를 열어줄 정도로 미주 동문들에게 깊은 애정을 쏟았다.

- LA에서 연주를 한 적이 있나요?
“물론이죠. 15년 전 디즈니 홀에서 당시 경기필하모닉과 함께 한인들을 위해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이번 음악회는 종전 70주년 기념 행사여서 많은 한인들

이 찾아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자는 취지의 음악회여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자신 음악을 통한 한미교류 확대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 연주할 곡목은 정해졌나요?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공연 전반부는 (프랑스 작곡가) 조르주 비제의 ‘카르멘’을 연주할 겁니다.

집시 여인의 어긋난 사랑이 불러온 비극적인 소재를 담았지요. 특히 투우사의 노래를 담고 있는 카르멘 서곡은 매우 빠른 곡으로 활기차고 강렬해서 한국인들이 좋아하시죠.

음악회 후반부는 정전협정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 작품과 미국쪽 작품 중 대표적인 곡을 선정해 연주하려고 해요. 어떤 작품이 좋을지 신중하게 고를 생각입니다.”

- 해설이 있는 지휘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1993년인가. 예술의 전당에서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프로그램을 요청받았어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클래식을 들려준다가에 좋은 기회다 싶었지요. 미래의 클래식 관객들이 많아요. 그전까지도 이 프로그램이 진행됐지만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학생 입장에서 그냥 지루한 시간이었죠.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연주할 터 벤처 오케스트라 창업, 무료 공연 동창회에도 기부문화 정착됐으면

제목부터 ‘금난새와 함께하는 음악여행’으로 바꾸고 학생들 눈높이에서 쉽고 재밌게 음악을 들려줬죠. 청중에 다가가는 전략이었죠. 그해 전석을 매진했습니다. 예술의 전당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저는 ‘위대한 지휘자’란 타이틀보다 ‘사랑받는 지휘자’라는 타이틀이 더 좋습

니다.”

- 스스로 지휘자 대신 ‘CEO’라 칭하며 벤처오케스트라를 창업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업과 상생을 통해 예술단체도 독립할 수 있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벤처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죠.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죠. 삼성전자는 물론 CJ, 포스코 등과 후원협약을 통해 독립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무료로 공연해주고, 기업은 우리를 도움으로써 자연스럽게 문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것이죠.”

김 동문은 무일푼으로 시작한 오케스트라를 8년만에 연간 135회 공연, 관객 12만명을 동원하는 국민오케스트라로 발전시켰다.

-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서울대가 기부의 메카가 되면 어떨까요. 김종섭 총동창회장은 기부를 많이 하는 기업인으로 알려졌듯이 서울대인들은 기부에 앞장선다는 이미지를 동창회가, 서울대가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동문은 서울예고 교장시절 4년간 연봉 전액을 기부해 학생들을 위해 썼다.

금난새 동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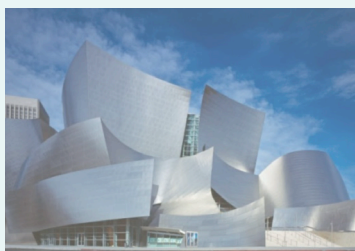
서울예고와 모교 음대를 졸업한 뒤 베를린 음대에서 라벤슈타인을 사사했다. 모교 재학시절 음대 학생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1977년 최고 명성의 카라얀 콩쿠르 입상 뒤 유러피안 마스터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거쳐 KBS교향악단을 12년 동안 이끌었다.

예술의 전당 기획 프로그램인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를 기획해 6년간 전회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2006~2010 경기필하모닉, 2010~2014 인천시립교향악단, 2015년부터 성남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 겸 예술총감독을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금난새의 클래식 여행’ ‘모든 가능성을 지휘하라’ ‘CEO 금난새’ ‘아버지와 아들의 교향곡’ 등이 있다.

디즈니 콘서트홀

2003년 오픈한 LA의 랜드마크 건축물 중 하나로 2,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이다. 외관은 꽃술을 둘러싸고 피어있는 꽃잎처럼 생겼다. 콘서트홀 중심으로 일곱 개의 부속건

물이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은빛꽃 모양이다. 디즈니 특유의 밝고 활기찬 느낌이 전해진다.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즈키상’을 받은 세계적 거장 프랭크 게리가 직접 설계하고 건축했다. 설계 콘셉트를 ‘항해’로 잡은 만큼 전체적으로 웅장하고 유려한데, 메인 출입로에

서 건물을 바라보면 돛을 우뚝 세우고 항해를 시작하는 선박처럼 보이기도 한다. 완공까지 무려 16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다.

디즈니홀은 LA시민들의 기부로 만들어졌다. 1992년 LA 폭동 후 인종차별과 평화를 상징하는 건물로 자리잡았다.

‘간 박사’ 한혜원(의대 55) 동문 거의 매주 한인교회 찾아가 B형 간염 혈액검사 미 전역의 450여 곳 방문, 2만5천명이 혜택받아



한혜원
의대 55

한혜원(의대 55) 동문은 미주 한인커뮤니티에서 ‘간 박사’로 통한다. 부군인 의대 동기 한수웅 동문과 함께 미주 전역을 방문하며 한인들에 B형간염 혈액검사를 해 많은 생명을 살렸다.

“한인 이민자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병원 갈 시간이 없어 방치하다가 간암으로 목숨을 잃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 죽겠다”며 “이건 의사들의 책임”이라고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B형 간염에 ‘꽃혀서’ 그를 찾는 곳이면 언제든 달려갔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경변증, 간암 환자 모두에게서 발견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진 한 동문은 1976년 노벨의학상 수상자인 블럼버그 박사와 함께 B형 간염연구와 간암을 연구했다. 지금까지 그가 발표한 학술논문만 해도 무려 184편에 이른다.

지난 2003년에는 커뮤니티 서비스 공로를 인정받아 동양인 최초로 ‘펜실베이니아 여성상(Distinguished Daughter of Pennsylvania)’을 받았다. 오는 6월 그가 토머스 제퍼슨 의대 종신교수직에서 은퇴한다. 서울대 의대에 입학해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무려 65년의 세월이다. 한 동문을 이메일로 인터뷰해 그의 어제와 현재,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을 들어봤다.

- 편집자.

- 평생 간 질환연구에 정진하신 이유는

“의과대학생 시절, 서울대학병원 내과병동에서 목격했던 간암환자들은 우리 의학도에게 큰 자극을 주었습니다. 처음엔 풍토병인줄 알았던 것이 나중에 바이러스가 원인이란 것을 알게 되었지요. 1971년에 저는 다행히도 그 바이러스를 발견한 블럼버그(Baruch Blumberg, 1976년 노벨의학상 수상자) 박사가 계시던 필라델피아 소재 팩스 체이스 암 연구소에 그의 연구팀의 일원이 돼 그후 17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제겐 행운이었어요.

사실은 1971년에 남편 한수웅 박사가 하버드에서 레지던트를 마치고 필라델피아의 세인트 크리스토퍼 병원의 면역학 펠로십을 받게됐습니다. 그래서 종양학을 전공했던 저는 블럼버그 박사의 연구팀이 될 수 있었지요. 남편 덕분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에게 맡겨주신 귀한 임무였다고 믿습니다.

1983년 Blumberg/Millman 두 박사의 연구를 바탕으로 Merck 제약회사가 처음으로 B형예방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동양인에게 B형 간염/간암이 많다는 사실은 이미 미국의학계에서 알고 있었기에 동양계 이민자들에게 우선 예방백신을 주사하기위해 B형간염 혈액검사가

려 8%에 가까웠습니다. 대부분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진단을 받았지요. 한인 사회 뿐만 아니라 미주내 베트남, 중국계 커뮤니티도 방문해 혈액검사를 했습니다.”

- 한인을 비롯한 동양인에게 간질환이 많은 이유는 ?

“모자감염이 주 이유였습니다. 건강한 보균모가 출산할 때 균이 있는 산모

동기생 남편 한수웅 동문과 팀 이뤄 부부가 10시간 운전해 찾아가기도 오는 6월 토머스 제퍼슨 의대 ‘은퇴’



한인교회를 방문해 간호사가 B형간염 혈액검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한혜원·한수웅 동문 부부.

시작되었습니다. 필라 인근에서 스크리닝을 시작해 B형간염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 특히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1988년에는 제가 제퍼슨 의과대학으로 옮겨오면서 내과부장 윌리스 메드리 박사의 후원으로 더욱 적극적인 B형 간염 연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모이는 곳이 교회여서 주일마다 교회를 찾아 혈액검사를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주일날에 일을 시키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남편 한수웅 박사와 함께 팀이 되어 거의 매 주일마다 한인교회를 찾았습니다. 남편은 심지어 이 일때문에 자기주말 당직까지 다른 의사에게 맡기곤 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거의 50년이 되갑니다.”

- 한인사회에서 ‘간 박사’로 널리 알려 지셨는데 언제부터, 또 지금까지 몇분이나 간염혈액검사를 해주셨는지요?

“1983년이후 450개 이상의 한인교회를 방문해 모두 2만5천명이 넘는 분들께 검사를 해드렸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주(펜실베이니아, 뉴저지, 뉴욕, 워싱턴 DC, 버지니아, 코네티컷, 노스 캐롤라이나)의 한인교회에 가서 강의후 혈액검사를 하고, 로스앤젤레스와 텍사스, 오크하임, 미네소타, 플로리다 등지에 있는 교회에는 비행기를 타고 가 강의를 했습니다. 검사는 그 교회에 계신 의사나 간호사분들이 하였습니다.

노스 캐롤라이나에는 10시간을 운전해서 교회 세곳을 방문했지요 그렇게 해서 B형에 감염돼있는 분들을 많이 진단했습니다. 40~60대 남자들의 감염률은 무

의 피와 아기가 산도를 통하여 같이 나오면서 산모의 혈액에 있는 바이러스가 아기의 피부, 점막 등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그 균은 즉시 아기의 간으로 가서 계속 자라게 됩니다. 성인이 되면서 간염이 되고 심지어 간암도 발생하게 됩니다.”

- 가장 잊지 못할,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복수가 차서 고생하던 환자가 항바이러스치료를 시작한 후 건강을 회복, 자신의 예술작품을 액자에 넣어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큰 그림을 병원복도에서 끌면서 밝은 얼굴로 걸어오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항상 피곤과 무기력으로 고생하던 환자가 건강한 직장인으로 활동하게 되는 모습은 자주 보는 기쁨입니다.”

- 강연은 1년에 몇차례나 하셨는지?

“B형간염 치료제가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던 2000년대에는 국내와 국외로 매년 10~20여번 (2004년에는 40번)을 했습니다. 국외라면 한국외에, 중국, 대만, 필리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었고 남미의 볼리비아, 파나마에도 갔었습니다. 남편 한수웅 박사도 자주 동행해 강의를 하였습니다. 남편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같은 성과를 내기가 거의 불가능했겠지요.”

- 오페라와 관련한 책(오페라는 누구나 즐길 수 있다)을 내셨는데 어떻게 오페라에 심취하게 되셨는지? 의학과 음악은 연관성이 있나요?

“아버님이 워낙 음악을 좋아하셔서 어려서부터 고전음악을 많이 듣고 자랐지

요. 1963년 약혼한 후 먼저 도미하여 빠른 의사훈련을 받을 때 인간의 희로애락이 함축된 오페라를 들으면서 외로움을 달래며 지냈습니다. 후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좌에 저희 부부가 토요 마티네 시즌티켓으로 10여년간 다녔습니다. 저희부부는 오페라책 한권씩 냈습니다. 오페라는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즐기게 되는군요. 의사들이 음악을 더 즐긴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의학도 음악도 인간의 마음을 다룬다는 면에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 지금까지 써낸 논문은 몇 편이나 되 시는지? 그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연구 논문은?

“논문은 지금까지 184편, book chapter 14편, 초록 185편이 됩니다.

처음 논문들은 주로 철분과 암성장에 대한 연구였고 후의 논문들은 간염과 간암에 대한 논문들입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논문은 여러 동물실험으로 철분이 암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증명한 논문들이었습니다. 국립보건원(NIH)의 annual report에도 실렸습니다. 철분의 영향은 실제로 간질환 환자들에게서도 관찰이 되었습니다.”

- 간 건강과 관련해 당부하실 말씀은?

“많은 약들이 간에 좋다고 자주 광고로 나옵니다. 이 약들을 복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의논한 후 쓰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는 것도 이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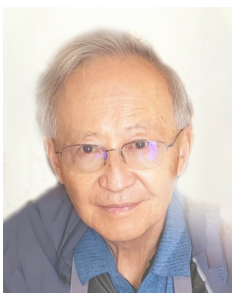
- 은퇴 후의 계획은?

“환자들을 모두 완치해드리고 은퇴하기를 원했어요. 아직 이루지 못한, 그러나 가능성있는 B형간염완치의 진행상황을 앞으로 계속 관찰할 겁니다. 현재의 치료로 많은 환자들이 거의 정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약을 중단하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B형간염 바이러스가 증식할때는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현재 쓰는 항 바이러스약들은 모두가 증식의 마지막 단계만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증식은 차단되나 투약을 중지하면 재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러스증식을 차단해 간염환자와 대부분의 간경변환자가 나아지는 중에도 간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이러스를 근절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완치를 하려면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여러단계를 다 차단하고 간세포내의 원관까지 없애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현재 이런 방향으로 완치약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가능하게 되기를 바라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페라를 계속 즐기겠고, 늘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더 연습하겠습니다.”

김성철의 6·25 일기 ‘역사 앞에서’ 좌·우 어느쪽에 치우침없이 객관적 기록 ‘스테디 셀러’ 장남 김기봉 동문이 영문판 Korean War Diary 출간



김기봉
공대 63

70여 년 전에 쓴 일기가 지금도 ‘스테디 셀러’라고 하면 선뜻 믿기 어려울 것 같다. 그것도 6·25 전쟁과 관련한 얘기다.

기록문학의 명저로 꼽히는 이 일기는 지난 1993년 ‘역사 앞에서’(창비 간)라는 타이틀로 출간됐다. 저자는 서울대 사학과 교수를 지낸 ‘재산’(霽山) 김성철. 그의 셋째 아들 김기협(문리대 68) 동문이 부친이 타계한지 42년만에 유고를 정리해 세상 밖으로 꺼내놓았다.

한글판이 나온지 29년만에 이번엔 저자의 장남인 김기봉(공대 63) 동문이 영문판 ‘Korean War Diary. A Historian in a War’를 출간했다.

지난 1969년 UC 버클리에 유학, 항공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 동문은 나사의 제트추진연구소(JPL)에 이어 국방부 과학연구소에서 거의 평생을 보낸 엔지니어다. 처음엔 두 자녀와 손주들에게 가족의 뿌리를 알려주기 위해 번역에 착수했는데 큰 딸 소니아가 이왕이면 출판하라고 격려해 책으로 나온 것이다.

한국서 ‘역사 앞에서’가 꾸준히 팔리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저자가 인민군과 국군의 모습을 중간자적 위치에서 본대로, 느낀대로 솔직하게 기술했기 때문일 터. 전쟁 속에서 좌절하고 변절하는 군상들 틈에서 느끼는 고독감, 그 가운데서도 기록자로서 소명을 잃지 않는 의연함이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얼핏 6·25라는 민족의 비극과 한 개인의 경험을 적은 일기는 어울리지 않는 듯 하지만 때로는 일기라는 형식이 거대한 사건을 생생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창 역할을 하기도 한다. ‘난중일기’를 통해서 임진왜란을 간접적이거나 체험할 수 있으며, ‘안네의 일기’를 통해서 유대인을 집단 학살한 나치의 광기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사학자로서 좌·우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역사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어느 하나도 허술하게 기록된 것이 없어 그 당시의 일이 마치 눈 앞에 보는 것처럼 생생하다. 저자의 뛰어난 문장력 덕분이겠지만 이 일기를 한 번 손

에 잡으면 독자를 그 시대 속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저자인 김성철은 누구인가. 장남 김기봉 동문에 따르면 부친은 일제 강점기 시절 ‘독서회 사건’에 연루돼 1년동안이나 옥고를 치렀다. 해방 이듬해 펴낸 ‘조선역사’는 당시로선 드물게 20만부 넘게 팔려 ‘매가 셀러’의 반열에 올랐다. 이병도, 이회승, 박종홍과 같은 당대를 대표하는 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석학이었다.



사학자 김성철 교수의 6·25 전쟁일기 ‘역사 앞에서’.

좌절하고 변절하는 군상들 틈에서 ‘고민’ 붉은 잉크로 인공기 그려 대문에 달아매 ‘따발총’ 인민재판을 목격하고는 등 돌려

저자는 인민군의 남침에 일말의 불안감을 느꼈지만 피난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서울의 집에 머물렀다. 인민군 치하에서 그는 이념갈등의 어두운 면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이 아닌 판 나라 백성이 되고 말았다. 이미 서울 거리에 붉은 기를 흔들며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들 중엔 어제까지 (우파)대한 청년단 완장을 차고 있던 사람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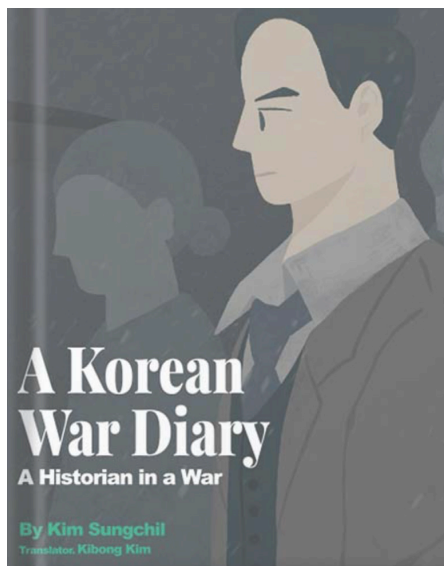
7월 3일자 일기에는 시쳇말로 웃픈 장면이 기술돼 있다. “우리도 붉은 잉크와 푸른 잉크로 인공기를 그려 집 대문에 달았다. 이 모습을 본 아내와 서로 보고 멋없이 웃었다.”

저자는 인민군의 첫 인상을 나쁘지 않게 적었다. 6월 28일자 일기 내용이다. “비록 역센 서북 사투리를 쓰긴 하나 우리와 언어 풍속 혈통을 같이 하는 동족으로 보여 어쩐지 적병이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어디 멀리 집 나갔던 형제가 오랜만에 고향에 찾아오는 것만 같

이 느껴진다. ~ 서로 열싸 안고 형이야 아우야 해야 할 처지에 있는 그들이 오늘날 누굴 위하여 무엇 때문에 싸우는 것이냐. 나는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인민공화국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저자의 생각은 그러나 불과 며칠 사이에 산산이 부서졌다. 명륜동에서 벌어진 인민재판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따발총을 맨 인민군들이 청년 몇 사



저자의 장남 김기봉 동문의 영문 번역판 ‘Korean War Diary’.

일기는 대략 여기까지다. 그는 1951년 10월 고향 경북 영천에서 고향의 총격으로 서른여덟해의 삶을 마감한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전쟁은 이념적 이분법을 강제한다. 우리 안에 도사리는 적개심을 부추기며, 결국 생각과 삶을 모두 파괴하고 만다. 이 책이 안겨주는 기억의 사회학적 메시지는 전쟁의 참혹함을 넘어서 평화에의 염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책은 아마존에서 하드카피와 킨들(Kindle)로 판매되고 있다.

▲문의: 703-727-4396

kkim.aer@gmail.com

Book Review

Having served as an infantry man with the British Army in Korea during the War there, I have had a lifelong appreciation of the hardships and sufferings of the Korean people.

Of all the books that I have read on the Korean War this is the first I have read about the ordinary non-military people and their sufferings during those dreadful years.

These are the word of a kindly caring man, not written to be published but as a record of what one man witnessed during a most savage time.

His words today are as important to all nations as when they were first put down on paper some 72 years ago.

This is a sad story, a story of terror, a story of betrayal, a story of friends fighting friends, brother fighting brother. But it is also a story of love and hope, of one man's dream to see his beloved country at peace and re-united.

A wonderful book, not all war heroes are in the front-line fighting not all war heroes receive medals. I can only say GAM SA HAM NIDA(thank you) to the author Kim Sungchill for your thoughts and kind words.

- Brian Hough(ex 1st Kings Regiment Korea 1952/53)

골드이사 · 회비 납부에 가슴뭉클한 사연도
“남편 닮은 손녀가 대학에 조기입학했어요”
은사가 세상 떠난 제자 위해 동창회비 대납

지난 12월말 쯤 필라델피아 소인이 찍힌 동창회비 납부 봉투가 사무실로 우송됐다. 미주 동창회가 회비납부 캠페인을 펼친 결과 호응이 커 이 봉투 역시 100 달러 회비를 동봉한 것이겠지 지레 짐작하며 봉투를 오픈했다.

보내신 분은 공대 56 학번의 신성식 동문. 대학 노트에 찰막한 글을 써 보내주셨다. 글씨도 아주 정갈했다. “노명호 회장님께”로 시작되는 메모는 시쳇말로 ‘대박’이었다.

“오늘 저희 손녀딸 코디(Caroline Kodiak Kim)가 대학 조기입학(Early Action Program)허가를 받았다”며 영어로 “We are thrilled”라고 썼다. 얼마나 흥분했는지 느낌표를 세개(!!!)나 덧댔다. 글을 읽는 사람도 덩달아 기분이 ‘업’됐다.

신 동문은 손녀의 명문대 입학을 부군의 ‘공’으로 돌렸다. “코디와 닮은 할아버지 김영우를 골드이사로 업그레이드 합니다”라고 적었다. 김 동문은 공대 55 학번. 알고 보니 부부가 공대 화공과 CC(캠퍼스 커플)였다.

신 동문은 남편을 종신이사(\$3,000)에서 골드이사(\$10,000)로 업그레이드 해달라며 차액 7,000 달러의 체크를 보내왔다. 그러면서 손녀가 남편인 김 동문을 닮아 두뇌가 명석하다는 걸 은근히 자랑했다.

최근 들어 김영우 · 신성식 동문과 같은 ‘감동 편지’가 부쩍 늘어나 동창회 임원들이 한껏 고무되고 있다.

지난 12월 22일자 편지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2년 전 세상을 떠난 동문의 초등학교 은사가 보낸 서신이었다. 은사 역시 공대 50 학번 이흥우 동문이었다.

이 동문은 100 달러 수표를 동봉하고

는 이 동창회비는 림근식(문리대 57) 동문이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은사가 작고한 제자의 연회비를 대납한 것이다.

은사인 이 동문에 따르면 림 동문은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 국방의 의

니스에 뛰어들어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건강이 악화돼 지난 2020년 결국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생전 서울대 동창회 모임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 졸업을 하지 않아 동창회원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

종신이사 김경숙(간호대 68) 동문은 지난 연말 7,000 달러를 추가로 보내와 동창회 골드이사가 됐다. 남가주 출신 동문들 중 12번째 ‘골드’다.

김 동문은 비즈니스로 일군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데도 힘쓰고 있어 주변에선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전형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사업하느라 바빠 동창회 모임에 적극 참여하지 못해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김 동문은 “앞으로 동창회가 벌이고 있는 프로젝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달 들어 종신이사 또는 골드이사에 가입한 간호대 출신은 김 동문을 포함해 세 분이나 된다.

조지아의 김현희 동문은 59학번으로 간호대 제 1기 졸업생이다. 선뜻 1만 달러의 체크를 보내와 골드이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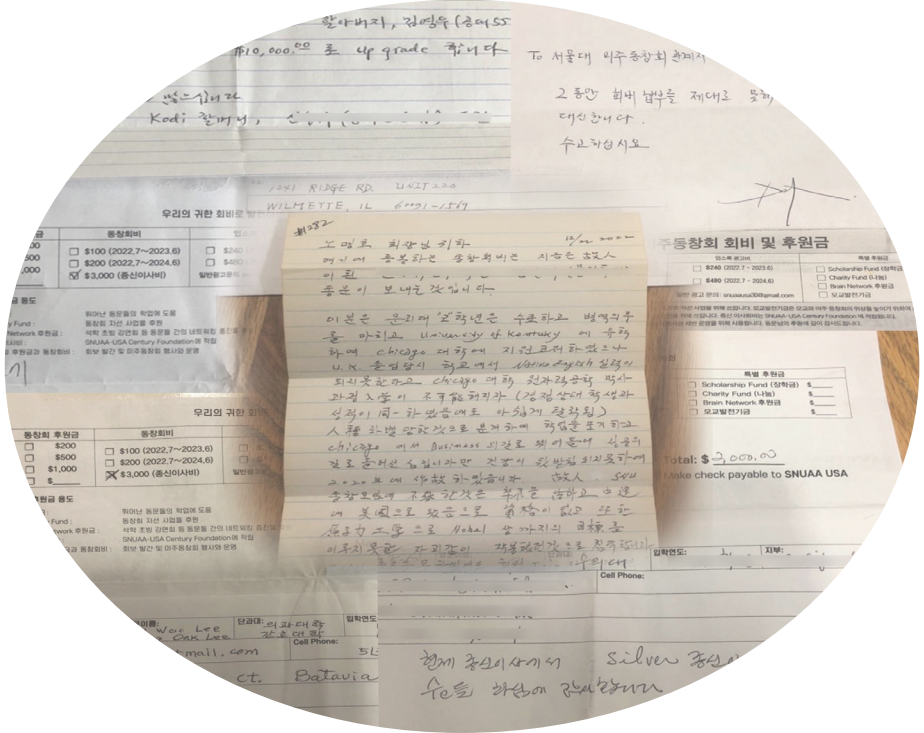
김 동문은 올해 미국거주 53년째를 맞는 이민 1세대. 1965년 아시아인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케네디 이민법이 시행되자 3년 뒤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정착했다.

“동창회보를 재밌게 읽고 있어요. 내용도 다양하고 특히 동문 소식이 많이 실려 있어 늘 기다려져요.” 모교 간호대에도 장학금을 보내고 있다는 김 동문은 앞으로 동창회를 돕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하이오의 현상옥 동문은 67학번. 종신이사에 가입해 동창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3,000 달러를 보내왔다.

한 의대 동문(70 학번)은 “그동안 회비 납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것(종신이사)으로 대신한다”며 3,000 달러 체크를 보내왔다.

취재=이호진(간호대 74)



www.yongsusanla.com

龍水山

개성요리 · 궁중요리 전문점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Tel : 213. 388. 3042 Mon thru Sun 11:30am ~ 10pm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결혼정보회사 ‘듀오’ 박수경 대표 “동문 자녀들이 제 인연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박수경
생가대 84
듀오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USA가 3년 만에 열린 크리스마스 행사 ‘듀오 Holiday Event’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듀오 USA는 지난 12월 22일 LA 코리아타운의 최고급 호텔 라인(The LINE LA)에서 그간 팬데믹으로 미뤄 왔던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열었다.

당초 미혼남녀 40명이 초대될 예정이었으나 폭발적 호응에 힘입어 총 54명(남녀 각 27명)이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이벤트는 참가자 모집 2주 만에 신청 접수가 마감되었고, 대기자 목록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희망자들이 많았다. 마지막까지 기다렸지만 결국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다양한 직업군과 거주 지역으로 관심을 끌었고, 낯선 분위기 속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좋은 기폭제가 되었다.

노르웨이에서 온 미모의 치과 의사, 캐나다 밴쿠버에서 온 의사, 시애틀에서 온 대학교수, 보스턴에서 온 멋진 디자이너, 산호세에서 온 몸짱 회원 등 각자 개성이 뚜렷한 참가자들은 자신의 매력을 한껏 살린 예쁜 드레스와 깔끔한 슈트 차림으로 파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참가자들의 기대와 설렘 속에 막을 올린 이번 이벤트는 본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부터 다양한 에피소드를 만들어냈다. 이상 기후로 인해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렀던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었고, 주중 목요일에 열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가자 대부분이 일찌감치 도착해 기다리는 성숙한 매너를 보였다. 또 일부 참가자들은

바쁜 듀오 USA 스태프들을 도와 순조로운 프로그램 진행에 힘을 보태는 등 멋진 모습도 보였다.

또한 이날은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이 많이 참가해서인지 자연스러운 교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오픈바에서 시작된 스몰토크(small talk)로 얼굴을 익힌 후

준비한 질문을 하며 눈을 반짝반짝 빛내는 활기찬 분위기가 순식간에 파티장을 가득 메웠다. 중간에는 잠시 맛있는 케이크와 커피를 먹으며 휴식했고, 이후 ‘스피드 미팅’ 후반전이 시작되었다. ‘역시 젊음이 좋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참가자들 모두 지지

연말 LA 이벤트에 총 54명 참가 ‘성황’ 다양한 직업군, 거주지역 등 관심끌어 총동창회와 업무협약체결, 서비스 제공



지난 연말 LA한인타운에서 열린 결혼정보회사 듀오 USA의 할러데이 이벤트에는 모두 54명이 참가, 성황을 이뤘다. 올해는 뉴욕 맨해튼에서 멋진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와인과 샴페인을 곁들이며 친밀감을 쌓았고, 한층 부드러워진 분위기는 메인 파티장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이번 이벤트를 위해 호텔 라인에서 준비한 정찬은 참가자들의 만남과 대화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스테이크와 샐러드, 케이크, 커피 등이 멋스럽게 차려져 제공되었고,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마다 제 역할을 해냈다.

먼저 스테이크와 샐러드를 먹은 후 바로 ‘스피드 미팅’으로 들어갔다. 제한 시간 6분 동안 한 명과 대화하며 탐색하고 매력을 발산하는 방식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성 27명과 만나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오가는 대화 속에 생각이 통하는 이성을 발견하면 1분 1초를 아쉬워하며 더욱 대화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지 않고 열심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었다. 듀오 USA 스태프들은 함께 현장을 지켜보며 같은 마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매칭 카드’에 마음에 드는 이성을 최대 4명까지 작성해 제출했다.

‘나와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 ‘나를 마음에 들어 할까?’ 자문하며 이름을 작성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기억이 나지 않거나 정보가 부족하면 상대를 찾아가 다시 대화를 하면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성황리에 이벤트가 마무리되고, 다음 날 무려 여덟 커플이나 탄생했다. 듀오 USA는 참가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고심해서 ‘매칭 카드’에 작성해 낸

사람들을 이어 새로운 인연을 맺어 주며 2022년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듀오 USA는 이번 이벤트가 오랜만에 개최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고, 끝난 후에는 참가한 회원들과 가족들의 많은 후기를 받았다.

한 참가자는 소개 만남에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고 연락해 왔고, 또 다른 참가자는 열심히 사는 좋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고 ‘너무나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감사 문자를 보내 왔다. 듀오 USA 스태프들 수고 많았다고 ‘따뜻한 커피 한잔 하라’고 커피 쿠폰을 보내 온 참가자도 있었다.

사무실로 굴 한 상자를 들고 온 한 어머니는 “딸이 이벤트를 다녀오고 나서 이 모임에 참가시켜 줘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무척 좋아했다. 이번 이벤트를 준비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이런 마음 따뜻한 후기를 들으면 그간의 고생이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 없어진다고 듀오 USA 스태프들은 입을 모았다.

듀오 USA는 이날 참가한 미혼남녀들이 전부 제 인연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벤트를 준비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느라 인연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한인사회 미혼남녀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바쁜 일정을 모두 미뤄 두고 참석한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듀오 USA는 미국 사회에서 교포 자녀들이 한국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 왔음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또한 매칭한 모든 회원들이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나누며 ‘우리 결혼했어요!’ 하는 소식을 전해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듀오 USA는 힘들었던 이번 이벤트 준비 과정을 기억에서 밀어내고, 오는 2023년 12월 뉴욕 맨해튼에서 멋진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듀오는 지난해 초 서울대 총동창회와 결혼정보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동문의 한 사람으로써 동문자녀들이 결혼이 주는 행복을 느끼도록 힘껏 돕겠다.

▲듀오 USA(www.duouusa.net)
▲213-383-2525 (LA)
▲201-947-2525 (NY)

원고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snuausa30@gmail.com 로 보내주시시오.





지난해 10월 모교 홈커밍데이에 참석한 미주 동문들이 서울대의 상징물인 정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서울대 랜드마크 만든 강찬균(미대 57) 동문 휘장속 ‘샤’에서 착안 “굳이 교명 병기할 필요없어” 7개 시안 중 강 교수의 아이디어 만장일치 채택돼

어느 학교나 ‘이것 모르면 타대생’인 조형물이 있다. ‘샤’ 모양의 관악캠퍼스 정문은 대학 정문으로 드물게 ‘전국구’로 유명해진 조형물이다. 서울대를 뜻하는 접두어가 된 ‘샤-’가 이 정문에서 기인

했고, 최근 광장으로 새 단장해 명소가 됐다. 서울대의 상징물인 정문을 제작한 강찬균(응용미술학과 57) 명예교수를 만나 이와 관련한 에피소드를 들어봤다. - 편집자.

서울대의 제1 상징물은 정문이다. 반론의 여지가 없다. 교명을 형상화해 어떤 대상보다 상징성이 뚜렷하다. 정문의 모양은 서울대 휘장 안의 ‘샤’(열쇠형 마크) 문양에서 왔다. 휘장의 도안을 정문으로 형상화한 사람은 강찬균 미대 명예 교수다.

담벼락 또는 기둥 등을 두고 문을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어떻게 이런 모양의 정문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강찬균 교수는 그동안 보관하고 있던 신문, 사진자료 등을 보여 주며 서울대 정문 탄생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강 교수는 보신각 종을 제작했으며, 현재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다.

1975~1980년 서울대 종합화 계획에 따라 단과대학들이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는 과정 중 정문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1976년 정문 제작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 4000만원을 마련했다.

강교수는 “예산안 통과에는 당시 광화문 이순신상 제작 등을 한 김세중 미대 학장의 역할이 컸다”고 했다. 1977년 1월 윤천주 총장이 주재한 학장회의에서 미대와 공대 건축과에 설계도를 위촉한다. 김세중 학장은 강찬균 당시 조교수에게 맡겼다.

1977년 3월 학장회의에서 7개 시안이 오르고 이 가운데 3개안이 선정됐다. 이는 1977년 4월 4일 대학신문에 자세하게 나온 바와 같이, 일반적인 형태의 교문 모습이었다.

동숭동 문리대 교문과 유사한 형태(본



1. 1977년 손수 제작한 금속 입체 축소모형과 강찬균 교수. 2. 투시도 3. 초기 나왔던 정문안

부안), 현대적 기념비 형태(미대안), 고전적 불국사 형태(공대안). 이 세개 시안 가운데 교수, 학생의견을 종합해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학장회의에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시안을 보완 후 재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전문위원회는 공대 건축과 이광노, 윤장섭, 정일용 교수, 미대 응용미술과 강찬균, 민철홍 교수, 미대 회화와 임영방 교수, 환경대학원 조경학과 양승이, 유병림 교수, 문리대 고고학 김원용 교수 등 9인으로 꾸려졌다.

1977년 6월 10일 전문위 1차 회의에서

교문설립에 대한 네가지 원칙을 수립했다. 첫째, 주위 환경 조화, 둘째 상징적일 것, 셋째 서울대인이 공감할 수 있을 것, 넷째 개방적이며 미단이식이어야 할 것 등이다.

6월 21일 2차 회의에서 강찬균 교수가 제안한 서울대 휘장안 ‘샤’형태의 정문이 8명 위원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상징성, 공감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전문위는 정식 도면을 요청하고, 7월 5일 강찬균 교수는 투시도와 20분의 1로 제작한 금속 입체 모형을 선보였다. 보

통 정문에 교명이 들어가지만, ‘샤’에 이미 교명이 반영됐기에 교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했다. 이 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황동색의 정문이 1978년 완공됐다.

강찬균 교수는 랜드마크의 개념이 희박하던 시절, 서울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교문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고민이 많았다. 더구나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짧은 시간에 결과물을 내야 했기에 밤새가며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일반적인 교문에서 벗어난 정문 구조물에 이견을 표하는 사람들은 없었을까.

“사실 작가로서도 휘장 안에 모양을 그대로 형상화하는데 부담이 컸다. 일반적 형태의 교문에서 벗어난 철 구조물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그러한 대형 철구조물이 드물었기에 독창성과 서울대를 직관적으로 상징한다는 것 때문에 전문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게 아닌가 싶다.”

현재 새 단장한 정문광장에 대해 강교수는 광장 바닥 색깔과 정문색깔을 조금만 달리 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내비쳤다.

강교수는 매일 의왕 청계 작업실에 출근하며 금속공예 작품 제작을 하고 있다. 한국공예가 협회 고문이며, 2014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개인전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여러 전시회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에서도 대통령상, 국전에서 문공부 장관상, 목양공예상 등을 수상했다.

최운화(상대 78) 동문의 새해 경제 전망

주식시장은 올 하반기에 구조적 반등 가능할듯 주택거래량은 상당기간 위축, 집값 하락 부추겨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미국에 경제침체가 닥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는 경제를 심각하게 둔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최상의 시나리오인 시장의 ‘골드락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경제상황) 기대와는 상반된다. 이에 동창회보는 최운화(상대 78) 동문을 초청해 새해 경제 전망을 들어봤다.

최 동문은 유니티 बैं크와 CKB बैं크행장 등을 지내 남가주 한인 금융계에 이미 능력을 검증받은 전문가다. 사모펀드인 ‘Quantum Group’ 대표로 투자에도 관여하는 등 실물경제에도 밝다는 평을 듣고 있다. 경제의 두 축인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새해 경제를 진단한다. - 편집자.



최운화
상대 78

지난 한해는 팬데믹의 경제적 타격을 막아내고자 시행했던 재정 금융 정책의 후유증으로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면서, 미국 경제의 최대의 숙제는 인플레이션 진정에 있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서방세계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식량 수출이 막히는 등의 악재가 겹쳤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미국 통화 팽창에 따른 수요 증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식량 공급 차질 ▲코로나 무관용 원칙을 시행했던 중국의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최고조에 달한 해라 할 수 있겠다.

전쟁의 여파와 공급망 차질은 미국의 경제당국 특히 연준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문제였고, 따라서 인플레이션 억제책은 당연히 금리인상과 양적 축소라는 금융 긴축에 전폭 의지하게 됐다. 금리는 역대 최대폭과 최단기 상승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0-0.25%이던 기준금리가 4.25-4.5%까지 올랐고, 이에 따라 중장기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 고금리의 길에 들어섰다.

고금리를 중심으로 한 강경 긴축정책은 개인재산의 두 축인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을 강타했다. 주식시장은 S&P 기준 20% 이상 조정되기까지 했고, 주택시장은 워낙 부족한 재고로 인해 어느 정도 가격하락의 하한선을 지켜주고 있지만 주택거래는 35% 정도 감소했다.

한편 팬데믹 기간에 넘쳐난 유동성으로 크게 성장한 고평가 IT관련 주식 중 대장주로 불리던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의 주식이 크게 하락했고, 가상화폐 시장은 2대 거래소였던 FTX의 몰락까지 겪으면서 붕괴의 위험까지 직면하고 있고, MEME 주식도 거품이 꺼지고 있다.

자산시장의 하락과는 달리 고용과 소비 시장은 잘 버텨주었다. 특히 고용시장은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시장의 건재

는 개인 소득을 늘려주었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소비력은 크게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 증가와 함께 개인소비가 잘 견딘 데는 ▲팬데믹 기간에 축적된 저축 (여러 지원자금과 경제활동이 억제되면서 소비를 충분히 하지 못해 생긴 결과), ▲모기지 금리가 상승했지만 대부분의 주택소유자들이 작년까지 초저금리의 고정금리를 가지고 있어 월 페이먼트가 늘어나지 않게된 효과가 더해지면서 소비가 잘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코로나 확산’ 중국은 예측불허 상황 연준의 긴축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듯 전문가들, 상반기 경기침체 국면 예상

연준은 지난 12월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계속 강경한 긴축을 당분간 유지할 것을 표명했다. 이 근거는 이제 미국의 소비가 제품에서부터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는데 서비스 부문의 원가는 대부분 인건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 있다. 제품 소비에서 서비스 소비로 옮겨가는 것은 서비스 부문이 특별히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팬데믹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다.

따라서 서비스 부문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고용시장이 약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연준의 입장이다보니 연준의 긴축정책은 실업률이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 긴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거시 차원에서 보면 불경기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올해 초 정도에는 미국이 경기침체에 들어갈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 것이다.

이상의 배경을 중심으로 새해 주요 경제부문 전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또 높아진 상태에서 한동안 머물 것으로 보면 주식시장의 가치평가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의 비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경기침체로 기업이이익마저 낮아진다면 주식시장의 조정은 더 깊을 수 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는 경기침체가 시작되면 연준이 긴축정책에서 전환해 중립정책으로 가고 곧 이어 경기부양책으로 간다는 것인데 이런 바람은 아무래도 올 1/4 분기는 지나야 연준이 힌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4분기 예상도 2%대는 넘을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연준이 볼 때 경기침체의 우려는 올해 1/4분기에 경제가 하락

락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거래는 상당기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주택가격 하락폭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준의 긴축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안정돼가고 있는 점은 소비에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연준이 추구하는 어느 정도의 침체를 통한 2%대의 인플레이션 확보 목표는 결국 실업률 증가, 직원들의 임금 협상력 감소, 개인 소득 증가 둔화 내지는 감소로 이어지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팬데믹 기간에 축적되었던 저축이 거의 다 소진된 점은 소비에 부정적이다. 가계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저축이 소진된 것과 연관돼 있다고 보인다. 그러면 소득 증가 둔화 내지는 실업률 증가로 감소까지 일어나는데 저축마저 바닥났다고 하면 소비축소는 더 심할 수 있다. 특히 주택, 자동차, 가전제품과 같은 목돈이 들어가는 부문이 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가 예상대로 늘어나지 못하면서 지난해 초부터 많은 기업들이 재고과잉 현상에 시달렸는데 금년 중반에 가서야 재고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많은 소매업체들이 할인을 통해 재고정리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여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재고증가가 미미하다 보니 재고가 경제성장율에 기여하는 부분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것으로 예상된다.

제품소비가 줄어들면서 제조업 부문의 둔화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 현상 역시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구재 소비가 더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문의 투자는 당분간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역시 기업투자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국은 미국보다 경제상황이 더 안좋기 때문에 수출 전망은 그리 좋지 않다.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이 가장 심하게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고, 외채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의 경상수지 상황은 매우 악화돼있어 글로벌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단지 코로나 무관용원칙을 포기한 중국의 상황은 매우 불확실하다.

잘 풀리면 중국경제가 가파른 회복을 할 수 있는 반면 최근 알려지는대로 코로나 확산이 겹잡지 못하게 되면 매우 위험한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상황은 예측 불허라고 하겠다.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월스트리트 주식시장. 올 상반기는 지나야 반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야만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의 구조적 반등은 결국 빨라야 올 2/4분기 정도가 될 것 같다.

주택시장은 현재 삼중고를 겪고 있다. ▲높은 모기지 금리 ▲팬데믹 기간에 올라간 주택가격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소득 감소가 그것인데 이중 어느 하나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변수는 없다. 비록 최근 들어 30년 고정금리가 낮아졌지만 그것은 7%를 넘어선 금리가 6%대로 내려섰다는 것이지 아직도 예년에 비하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획기적인 하락은 아니다.

주택가격 하락은 이미 4개월째 지표에서도 나오고 있고 이는 주택시장의 안정에는 긍정적이다. 그래도 아직 2021년 대비 10%대 이상 올라간 가격이어서 첫 주택구입자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주택 소유자들은 가진 집을 팔고 거기에서 나오는 에퀴티를 다운페이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첫 주택구입자와는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다운페이는 할 수 있다고 해도 새로 구입한 주택을 위한 모기지 금리가 두배 이상 올라있어 월 페이먼트가 급격히 올라가게 돼 이사를 하기 어려워졌다. 이는 기존 주택거래량 하



때 묻지 않은 절대 순수의 세계. 남극의 빙하는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천년, 몇만년 압축돼 사진에서처럼 푸른 빛이 나온다.

‘남극을 품은’ 방효신(약대 56) 사진작가 “극한의 오지에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신건호(법대 53)·방효신(약대 56) 동문은 ‘세상 안 가본 데가 없는 부부’다. 한마디로 ‘역마살이 낀’ 분들이다.

대체 지금까지 몇 나라나 여행했을까. “어림잡아도 140개국을 넘을지 싶어요.” 방 동문이 셈을 해봤다. ‘안 가본 데가 없다’는 말이 과히 틀리지는 않을 터다. 부부의 ‘여행기’는 1976년부터 현재진행형이다. 물론 팬데믹 동안만큼은 예외다.

신 동문은 외교관 출신이다. 바깥 세상이 구경하고 싶어 외무부에 들어갔다. 방 동문은 사진 작가. 수십차례나 전시회를 열었고 사진첩도 출간한 베테랑이다. 여행에 관한 한 궁합이 척척 들어맞는 커플이라고 할까.

여행지는 대개 한 번 가서 보고 나면 ‘물리기’ 마련이다. 부부에게 딱 한 군데 예외가 존재한다. 더 늦기 전에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니 바로 남극이다. 지난 2015년 두 번째 갔다 왔는데 한 번 더 가보고 싶다고 했다.

남극 얘기만 나오면 부부는 ‘익사이팅’해진다. 씩씩이 남극 예찬이 쏟아진다. 때 묻지 않은 신선한 공기가 그림고, 숨 막히는 자연의 아름다움... 이 모두를 한 번 더 카메라에 담아내고 싶은 것이다.

남극으로의 여행은 결코 녹록지 않다. 남미의 땅끝마을인 우슈아이(아르헨티나의 최남단 항구)에서 뱃길로 꼬박 48



“숨 막히는 아름다움, 때 묻지 않은 공기~” 남편 신건호(법대 53) 동문과 함께 두차례 ‘세상 안 가본 데 없는’ 부부 140여국 여행

시간, 사나운 바다(드레이크 해협)를 뚫고, 지독한 뱃멀미를 견디며 마침내 다다른 남극 대륙. 이런 험한 곳을 벌써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도 그 비경을 잊지 못해 생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보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80 중반을 훌쩍 넘긴 나이에.

“정말 퓨리티(purity) 그 자체예요. 오



▲ 신건호·방효신 부부는 지금까지 140여개국을 여행했지만 남극은 보고, 또 보고 싶은 곳이다. 부부는 대자연의 장엄함에서 겸손을 배운다고 했다.

◀ 킹펭귄(king penguin)은 펭귄 중에서 황제펭귄 다음으로 몸집이 크다. 10여년 전만해도 남극에는 100만 마리 이상이 살고 있었으나 기후변화 탓으로 현재 10만 마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된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함이라고 할까요. 그게 몇천 몇만년 동안 압축됐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푸른 빛이 나오는 겁니다.”

여행의 끝판왕이라는 남극. 부부가 남극에 매료된 이유는 인간의 손을 거의 타지 않은 자연미에만 있지 않다. 최악의 환경에서도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는 걸

보며 대자연의 장엄함을 느낄 수 있다는 데 있다.

“남극에 발을 딛고 서있으면 우리 자신이 아주 작은 생명체에 불과하다는 걸 느끼게 돼 겸손해진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 부부는 남극을 일컬어 ‘꿀림’ 보다는 ‘떨림’을 주는 곳이라고 했다.

방 동문은 다음달 노르웨이 북단의 ‘로호텐’을 여행한다. 눈 덮힌 어부의 마을과 오로라를 카메라에 담아오기 위해서다. 비행기를 네 번이나 갈아타야 하지만 벌써부터 설레인다. “이번에는 수지 동생과 둘이서만 가요.” 수지는 노명호 미주동창회장의 부인이다. 둘은 친자매 이상으로 가까운 단짝 카메라 친구다.

방 동문의 외조부는 최규동 서울대 3대 총장이다. 그러니 뱃속 깊이 서울대인의 DNA가 흐르고 있는 셈이다.

부부는 오는 4월 ‘다이아몬드 애니버서리’ 곧 결혼 60주년을 맞는다. 남극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부는 지구촌 어딘가에서 오묘한 만남을 가질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방 동문은 지난 연말 LA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남가주 사진작가협회 전시회에 출품, 호평을 받았다. 샌프란시스코의 홍경삼(문리대 61) 동문이 ‘사진예술의 마에스트로’ 앨버트 왓슨의 명언을 인용, 방 동문에 축하의 글을 보내왔다.

“Find the beauty that others don’t see and capture it with your camera.”



킹펭귄의 등은 은회색, 배는 흰빛, 머리는 검은 빛이 나는 갈색, 귀 주변과 목 앞쪽은 짙은 주황색이다. 갈색 펭귄은 모두 한살 미만의 새끼들이다.

베를린 필하모니와 비엔나 황금홀 꿈의 무대에 선 피아니스트 조영현(음대 95) 동문 미시간 주립대 교수,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 ‘호평’



조영현
음대 95

베를린 필하모니와 비엔나 무지크페라인(황금홀)은 클래식 연주자들에게는 꿈의 무대로 통한다. 전자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장이며 후자는 비엔나 필하모닉의 홈무대다. 두 곳에서 연주를 했다면 세계적인 아티스트라고 불려도 결코 과장된 표현은 아닐성 싶다. 클래식 음악에서 두 공연장이 갖는 ‘무게’ 때문이다.

미시간 주립대의 조영현(음대 95) 교수가 주인공이다. 지난해 10월 두 곳에서 공연을 가져 아직도 그 때의 감동이 살아 숨쉬는 듯 상기된 표정이다.

조 동문은 슈만의 피아노 콘체르토를 연주해 유럽의 팬들에게 클래식의 정수를 들려줬다. 슈만은 평생 단 하나의 피아노 협주곡을 남겼는데 모두 3악장으로 이뤄진 로맨틱한 작품이다.

베를린 필하모니는 1963년 개관 테이프를 끊었다. 오프닝 콘서트는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불멸의 뮤지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봉을 잡았다.

베를린 필하모니는 그랜드홀과 실내악 홀로 나뉘어지는데 조 동문은 그랜드홀에서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독일인들은 제 2차 세계대전 중 옛 필하모니 건물이 파괴되자 종전 후 모금에 나섰다. 새 공연장은 무대를 건물 중앙에 배치하고 객석을 16개의 블록으로 나눠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개관 당시에는 베를린 장벽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는데 통일 후에는 베를린의 중심으로 바뀌었다. 처음부터 베를린 장벽 가까이 지은 것은 이곳이 언젠가는 통일 베를린의 중심이 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라고 한다.

총 2440석으로 결코 적지 않은 객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대와 객석의 최대 거리는 30m에 불과하다. 조 동문은 “베를린 필하모니 무대에 섰다는 자체가 제게는 큰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조 교수가 연주한 비엔나 무지크페라인 골든홀(황금홀) 역시 베를린 필하모니 못지 않은 명성을 갖고 있는 곳이다. 음악인들에게 세계 최고의 콘서트홀을 꼽으라고 하면 심중팔구 비엔나의 무지

크페라인을 꼽을 정도다.

새해 아침 전세계 음악애호가들의 눈과 귀를 사로 잡는 비엔나 필하모닉 신년음악회가 열리는 곳이 바로 무지크페라인이다. 내부 장식은 황금빛으로 수놓아 화려함의 극치를 이룬다. 음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소리가 금빛으로 들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다.

도 음악의 본고장인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이탈리아, 벨기에, 헝가리, 스페인, 폴란드, 체코,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갖는 등 왕성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 동문은 절대음감(perfect pitch)의 소유자. 이 같은 재능이 다섯 살 어린

를 받아들여 인류에 불후의 명곡을 남겼다.

조 동문은 소니 클래식스 레이블로 음반을 출시했다. 베토벤의 마지막 3개의 피아노 소나타를 포함시킬 만큼 베토벤과 소통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전곡을 연주해 음반을 내는 것이 그의 꿈이자 목표다.

미시간에 오기 전에는 텍사스 주립대(알링턴)에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10년을 가르쳤다. 보수성향이 짙은 곳에서, 조 동문은 특히 동양 여성이라는 핸디캡을 이겨내고 교수직에 발탁됐을 때를 결코 잊지 못한다. 채용 통보를 받고서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펄펄 눈물을 쏟아냈다. 100명이 넘는 지원자 가운데 자신을 선택한 대학 측에 지금도 고마워하고 있다.

조 동문은 요즘 동창회에서 또 다른 삶의 활력을 찾는다. “다양한 배경의 동문들을 만날 수 있어 제 음악의 지평을 넓히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지요. 모든 분들이 제게는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조 동문은 미시간 동창회(회장 이광진·공대 81)에서 기획국장의 중책을 맡고 있다.

조 동문의 피아노 라이브 연주는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cyholive1/vid-eos>

이외에도 조 동문의 Sony 음반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클릭하면 된다.

Spotify
<https://open.spotify.com/artist/6ik-jOMuwXiIjhKUaD3XNLS>

Amazon
https://www.amazon.com/Beethovens-Late-Three-Piano-Sonatas/dp/B08WT2NG5C/ref=sr_1_1?d-child=1&keywords=Young+H-yun+Cho&qid=1621965738&sr=8-1

Apple Music
<https://music.apple.com/us/artist/young-hyun-cho/1527019499>

알라딘: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65419582>

예스24 : <http://www.yes24.com/Product/Goods/97649244?OzSrank=1>

인터파크 : http://book.interpark.com/product/Good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500000&sc.prdNo=346917716&sc.sch&bookblockname=b_sch&booklinkname=bprd_title

핫트랙스 : <http://www.hottracks.co.kr/ht/record/detail/8803581185959/artist/young-hyun-cho/1527019499>

피바디와 이스트만 유학, 박사 학위 베토벤 전곡 소나타 음반 출시 목표 “동창회는 삶의 활력소나 다름없어”



피아니스트 조영현 동문이 꿈의 무대로 불리는 베를린 필하모니 그랜드홀(사진 위)과 오스트리아 비엔나 무지크페라인 골든홀에서 연주하는 장면. 조 동문은 슈만의 콘체르토를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1870년 개관 연주를 듣고 한 평론가가 “음악이 건축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지금도 무지크페라인과 관련해 널리 회자되는 명언이다. 조 교수는 황금홀(1744석)에서 연주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며 그때의 감격을 표현했다.

한국인이 두 클래식 성지에서 공연을 가진 것은 흔히 않은 ‘사건’이다. 그러나 조 동문의 ‘배경’을 알게 되면 수긍이 간다. 한국에서 예원학교와 서울예고, 서울음대(피아노)의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 미국에 와선 피바디(석사)와 이스트만(박사)에서 유학해 정통 음악인의 길을 걸었다.

조 동문은 미국과 한국 무대 이외에

소녀에게서 나타난 것이다. 악보를 읽는 것이 재미있었고 그 때문에 피아노를 빨리 익힐 수 있었다.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보여 초등학교 3학년 때 벌써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웠다.

조 동문의 음악인생 목표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2곡 전부를 연주하는 것. 베토벤을 얘기할 때면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눈물이 난다고 한다.

베토벤은 만년에 청력을 잃는 등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내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자신에게 왜 이런 저주가 내렸는지를 한탄하며 신에게 따질 듯 외치지만 결국 이를 극복하고 오히려 신과 대화를 하며 이



한영신의 헬스푸드(5)

적당한 탄수화물 섭취는 얼마일까?

영양적 균형이 잡힌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곡류 식품군, 단백질 식품군, 채소 식품군 등 3가지 식품군의 식품을 갖추어 먹어야 한다. 곡류 식품은 탄수화물을 주로 함유하고 있어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요 식품이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식품으로는 곡류 뿐 아니라, 사탕, 초콜릿, 과자, 아이스크림, 빵, 케익 등 당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도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곡류군이 아닌 탄수화물 식품을 얼마나 먹어야 할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는 나이, 성별, 활동 정도에 따라 많이 다른데, 활동이 적은 65세 남성은 2000kcal, 여성은 1600kcal를 권장한다.

중간 값인 1800kcal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루 밥 1공기씩 3번 먹으면 탄수화물 식품은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된다. 밥 한공기의 무게와 열량은 210g, 300kcal인데, 밥을 먹지 않고 다른 것을 먹을 때, 코스트코 베이글 한 개(300kcal), 좀 큰 식빵 2조각(300kcal)을 대체해서 먹을 수 있다.

빵을 좋아한다면 식사 후에 머핀 같은 빵을 후식으로 먹는 경우가 있는데, 밥을 주식으로 식사를 하는 한국사람의 경우 주의해야 한다.

끼니 때 밥으로 탄수화물 식품을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머핀이 먹고 싶다면

후식이 아니라 한 끼 밥 대신 먹어야 한다. 코스트코 머핀 하나가 밥 한공기 열량과 거의 같다.

케익이나 아이스크림을 후식으로 먹는 것은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단백질을 많이 먹는 서양 식사에 적합한 식문화이다.

우리나라처럼 밥이 주식인 식문화에서 후식으로 케익이나 빵을 먹는다면 탄수화물 과다에 의한 비만이 될 수 있다.

아이스크림, 케익, 머핀 같은 단 음식을 후식으로 먹고 싶다면 밥의 양을 줄이고 밥 줄인 만큼 먹어서 총 탄수화물 양을 맞추면 된다.

그런데 탄수화물은 총 열량보다 어떤 탄수화물 식품을 먹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같은 열량을 먹어도 어떤 탄수화물을 먹는가에 따라 비만과 당뇨병이 결정된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바로 '인슐린' 때문이다. 세포는 당을 받아 에너지를 생산해 살아간다. 전기가 없

으면 전기제품이 쓸모 없어지는데, 세포에서 당은 전자제품에서 전기와 같이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세포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당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인체는 하루 3

번 식사를 하니, 세포입장에서 보면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당이 공급되고, 어떤 때는 당이 없어서 문제이다.

불규칙적인 당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체는 많은 호르몬이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인슐린이다.

식사 후에 당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면 인슐린은 당을 세포안으로 넣고 저장 형태인 지방으로 변화하도록 명령하여 부족한 미래를 위해 비축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통곡물 형태의 탄수화물을 먹으면 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인슐린도 천천히 분비되어 혈당이 천천히 떨어지면서, 당이 세포에서 에너지로 쓰이는 비율이 높아진다.

그런데 단순당 형태의 식품을 먹으

면 소화될 필요 없이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이 갑자기 많이 분비되어,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많은 양의 지방이 합성된다.

당이 세포에서 에너지로 쓰이기 전에 쌓는 쪽으로 대사가 되었으니, 세포는 에너지가 부족했고 그래서 신체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신호, 즉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단순당 형태로 먹은 사람들이 쉽게 배고프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이다. 이때 조금만 참으면 지방이 분해되어 에너지를 공급할 텐데 이 시간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또 먹게 된다.

그래서 탄수화물 식품을 단순당 형태로 많이 먹는 사람은 같은 열량을 먹어도 살이 많이 찌고, 배고프다는 느낌을 더 받게 되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열량을 먹는 결과를 얻게 된다.

통곡물 형태로 하루 3번이든 4번이든 규칙적인 리듬을 가지고 먹어야 신체가 예측 가능하게 당을 조절하면서, 세포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한다.

신체가 예측할 수 없이 불규칙하거나 갑작스럽게 변화하면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질병이 걸린다. 그래서 규칙성이 중요하고 음식의 형태가 중요하다. <식품영양학 박사>

알츠하이머 치료제 '리케인맵' FDA 신속승인, 27% 지연돼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연방식품의약국(FDA)에 신속 승인(accelerated approval)됐다.

AP 통신 등은 FDA가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개발한 신약 리케인맵(Lecanemab)을 신속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신속 승인은 심각한 질병의 치료제를 하루 빨리 실용화하기 위해 일단 사용을 승인한 뒤 효과가 확인되면 최종 승인하는 제도다.

리케인맵은 이르면 1월말부터 미국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리케인맵은 시

중에 레렘비(Leqembi)란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 의료보험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메디케어가 커버하면 가입자의 실질 자기 부담액은 하루 최대 14달러



FDA로부터 신속승인받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리케인맵(레렘비).

50센트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케인맵은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를 뇌에서 제거해 치매 진행 속도를 크게 낮춘다. 임상시험 결과 리케인맵을 복용한 환자들은 위약(플라시보)을 복

용한 이들보다 인지능력 쇠퇴가 27% 가량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FDA는 리케인맵이 알츠하이머의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알츠하이머의 근본적인 질병 기전을 타겟으로 한 최신 치료제라고 높게 평가했다.

한편 FDA의 승인을 받아 첫 시판에 들어간 알츠하이머 치료제 '애두헬렘'은 약효와 검증되지 않은데다가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 실패작으로 간주됐다.

미국의 알츠하이머 환자는 6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 확 바뀌었습니다

snuuaa.org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www.snuuaa.org)를 새로 단장했습니다. 정보 접근성과 사용자 편의성 등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했고 동시에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브레이킹 뉴스'를 비롯해 각종 공지사항이 소개됩니다. 동창회보의 1면 기사가 사진과 함께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미주 동창회가 주관·진행하는 주요 사업과 매달 열리는 포럼 등이 소개돼 홈페이지만 봐도 동창회의 활동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뉴스를 보강한 것이 눈에 띕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발행된 동창회보를 연도와 월별로 읽을 수 있도록 pdf 파일을 첨부해 놔습니다. '종이'보다는 '디지털'에 더 익숙한 세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확 바뀐 snuuaa.org에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접속을 바랍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 먹기에 달려있어”



김영천
약대 72
뉴욕 동창회장

다사다난 했던 검은 호랑이 해가 지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 번이된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과 자연재해 그리고 계속되는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및 사회적 불안을 안고 시작된 검정 토끼의 해는 어린 묘목이 겨울의 눈보라를

맞아서 어떻게든 꽃을 피우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으로, 겨울의 눈보라를 잘 견딘 꽃나무가 이제 꽃을 피우려고 준비하는 것과 같은 해라고 동양역학에서는 말합니다.

지난 일년간 많은 어려움 중에도 동창회를 위해 물심 양면으로 도움을 주시고 수고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과 저의 의견을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물질적 또는 정신적인 여러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 집니다.

그중 한 예는, 빙산의 일각(9% - 17%)과 같이 실체가 있는 물질이 우리의 눈에 일부만 보여 감추어진 큰 본체를 보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우리들이 관찰하는 순간 전자의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이 한쪽으로 결정되어지

는 양자물리학의 관찰자효과와 같은 경우입니다.

동서양의 성현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다르지 않고, 느낌과 생각과 행동과 의식 또한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상황에 따라 또는 환경에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데, 이는 매우 큰 착각이라고 합니다.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등 모든 것은 마음에서 지어내는 것으로,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창회도 이와 같은 물질적, 정신적인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동창회는 동문들에게 관찰되어 져야 하며, 마음이 따라야 가시적 동창회로 존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울대학교 졸업생의 모임이라는 의미 이외에, 동문 서로 간의 유대감과, 선후배 간의 존경과 사랑이 가시화되어야 동창회이고, 동창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동창회의 존립과 발전은, 동문들의 친목과 참여, 동문들 간에 좋은 유대관계를 갖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긍정적인 참여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지역 동창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가능한 모든 모임의 대면 활성화를 돕고, 보다 적극적으로 공통관심사 모임 (동호회, 동기회 또는 단과대 모임 등)에 지원하여 젊은 회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장학기금 수여자격(유학생 및 회원 가족)을 지속, 확대하여 회원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동창회의 역점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동문상호간의 소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동문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협조와 참여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든 동문가족들의 평안 하심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6월 정기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터



이종태
사대 71
필라 동창회장

올해 필라 동창회의 가장 큰 행사는 6월 정기총회입니다. 새 회장단을 선출하며 특히 빈민가에서 구제 및 도시선교활동을 펴고 있는 동문을 초청, 강연을 가질 예정입니다.

5월과 9월에는 동문들간의 단합을 다지는 골프토너먼트가 일정에 잡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음악회와 미술 전시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

문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6월 열린 정기총회에선 이종태 심회진(음대 90) 동문이 각각 회장과 부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정규병(공대 78) 동문의 ‘Big Data & Digital Life’ 주제의 강연과 음대 동문들을 주축으로 한 소음악회와 시나위 춤 공연 등 총회는 알차고 즐겁게 진행됐습니다.

작년 9월에는 박해란(음대 84) 동문의 지휘로 서울대 필라 동창회 45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12월 송년모임에는 과테말라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김현영(수의대 58) 동문의 ‘Creative Minority’란 주제로 강연해 큰 울림을 주기도 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알찬 동창회가 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앤아버와 랜싱에 관악연대 모임 결성



이광진
공대 81
미시간 동창회장

미시간 동창회는 2022년에 창립되었습니다. 1년도 채 안된 신생 지부여서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모임을 활성화시켜 미주 동창회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고 프로그램도 더욱 업그레이드할 각오입니다.

올해는 아직 연락이 되지 않으신 동문들을 발굴하고 이제까지 파악된 동문들 간의 친목도 더욱 다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미주 동창회로부터 지원 받은 관악연대 활성화 기금으로 앤아버와 랜싱지역에서 관악연대 지역모임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21일에는 구정을 맞아 설날 잔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새해인사를 나누고 맛있는 한식부패와 함께, 윗놀이, 제기차기 등 재미난 전통놀이와 베스트 한복 콘테스트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지난 두 달동안 K-Culture Club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동문들의 대금연주 무대도 펼쳐졌습니다.

6월중에는 공원에서 피크닉겸 총회를 열 계획이며 9월중 골프대회 또는 체육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산행 등 소모임 더욱 활성화해 친목 도모



최경선
농대 65
북가주 동창회장

모두가 힘들었던 팬데믹 상황에서도 저희 북가주 동창회는 동문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큰 어려움 없이 잘 성장해 왔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동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희망찬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 그동안 위축되었던 산행모임, 골프모임, 탁구모임, 음악동호인 모임 등 여러 소모임을 더욱 활성화해 더 많은 동문들,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 내 선후배간 친선과 유대를 다지고 앞으로 동창회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하시는 일 뜻대로 잘 이루어지시고 모두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변함없는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장학생 모집, 관악회 모임 등 일정 짝차



임영호
공대 72
뉴잉글랜드 동창회장

오는 4월 관악회 모임에 많은 젊은 세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이외에도 3월에는 고교 11~12학년, 학부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6월 총회에서 스킨십을 받게 됩니다.

총회에 앞서 5월에는 이사회가 열립니다. 이날 2023~2024 새 임원진이 선출됩니다.

포럼 또한 뉴잉글랜드 동창회의 주요 프로젝트입니다. 1월 26일 장승모(언론



정보 97) 교수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되기'를 비롯해 2월에는 브로드 연구소 박사후 연구원인 배진형(공대 05) 동문이 '차세대 DNA 염기서열 분석'이라는

주제로 포럼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최진민(공대 71) 동문이 새 회장에 취임, 동창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한국 재산과 미국 재산 상속을 오랜 경험의 상속법 전문 이종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한국 재산상속에 대해서도 캘리포니아주법을 알아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 미국에서 한국 재산과 미국 재산의 유언장 작성
- * 미국 재산 리빙트러스트 작성
- *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등기
- * 한국 상속세 절세
- * 한국 부동산 매매 및 양도소득세 절세



이종건(경영대 84)

JKLAWUSA, A PROFESSIONAL CORPORATION
한 미국 제 법률 사무소

USA 3435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787-3107 Fax. (714) 494-7649

Korea Hanmi International Law Firm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길 11, 310호(역삼동, 한화진넥스빌)
Office. 02-561-9797 Fax. 02-561-9696

‘폭소대잔치’가 따로 없어…분위기 뜨겁게 달궜 새 회장에 임헌민(공대 84) 동문 만장일치 ‘추대’

지난해 12월 10일 이명자(간호대 74) 회장 자택에서 열린 워싱턴(시애틀) 동창회 송년회는 모두 40여 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석, 패밀리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당초 뉴포트 요트 클럽에서 모임이 잡혀있었으나 이명자 회장이 선뜻 자택을 송년모임 장소로 개방해 연말 분위기를 달궜다.

특히 이날 양종호(사대 80) 동문이 자녀들과 함께 나와 크리스마스 캐롤을 연주하며 노래를 불러 모처럼 즐거운 시간이 됐다.

이날 김용배(공대 97, 메타 페이스북) 동문을 비롯해 정현주(수의대 88), 김의신(공대 67), 양흥순(공대 94, 쿠팡), 박한규(공대 91, 마이크로소프트) 등 5명의 동문이 처음으로 모임에 나와 큰 박수를 받았다.

2부 순서는 고사성어 맞추기 게임 등 다채로운 여흥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팀 대항으로 열린 퀴즈 게임은 참석자들을 네 팀으로 나눠 각 팀의 최고 연장자를 팀 리더로 정했다. 팀은 가위바위보로 선수를 하나 둘씩 뽑아가며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우스개와 재미난 멘트가 난무, 폭소 대잔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승윤(공대 90) 동문이 준비한 고사성어 맞추기 게임은 무대 화면에 초성만 네글자를 보여주고 알아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를 들어 ‘소오즈미’를 보여주면 정답은 ‘새옹지마’가 되는 식이다.

간단해 보이는 게임이지만 갈수록 열기가 더해져 폭소가 터져나오는 등 시

이명자(간호대 74) 회장 자택서 열려
‘사자성어’의 달인 이재익·정은구 동문
‘빛의 속도’로 정답 맞춰 감탄 쏟아져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워싱턴 동창회 송년모임. 이명자(간호대 74, 사진) 회장 자택에서 열린 이날 모임엔 40여 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석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선 임헌민(공대 84) 총무가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특히 이재익(의예 88), 정은구(치의예 92) 두 동문은 ‘빛의 속도’로 정답을 알아맞춰 감탄을 자아냈다.

두 그림에서 서로 다른데 찾기 게임 역시 이날의 하이라이트. 이정관(농대 83) 동문이 주관한 이 게임은 비교적 쉬운 조합의 그림인데도 맞추기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팀원들이 협력해 답을 풀어나 여기저기서 ‘원더풀’ 찬사가 쏟아졌다.

선물과 경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김명호(Mrs. 김재훈, 공대 72) 여사가 준비를 해와 모든 동문들에 고루 전달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다.

앞서 열린 총회에선 지난 16년간 동창회를 위해 헌신한 임헌민(공대 84) 총무를 회장으로 추대,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총무는 이정관(농대 83) 동문이 맡아 수고를 해주기로 했다.

신년 하례식은 오는 2월 11일 임헌민 신임회장 자택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모임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다.

김강식(보건대학원78), 김덕영(62), 김인배(수의대59), 김의철(농대73), 김재훈(공대72), 박승현(음대85), 윤태근(상대69), 양종호(사대80), 이명자(간호대74), 이승윤(공대90), 이재익(의예88), 이정관(농대83), 이정자(사대61), 임헌민(공대84), 정은구(치의예92), 정효순(보건대학원 87), 정태환(공대88), 최준한(농대58), 홍세정(자연대98).

since 1999 듀오 USA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결혼해듀오



www.duouusa.net

LA 213-383-2525
NY 201-947-2525



오정환
법대 83

태국 정부가 1965년 남부지방의 한 고속도로 공사를 발주했다. 수십 개 외국 업체들이 응찰하는데 한국의 현대건설도 참여했다. 태국 사람들은 기가 막혔다. 그들에게 한국은 10여 년 전 참전했을 때 봤던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였다. 어딜 가나 구걸하는 아이들이 따라다니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 나라에서 자기들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온 것이다.

현대건설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서구업체의 반값에 도로를 만들고, 하자가 있으면 공사비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태국 정부는 미친 소리라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라고 발주했다.

현대건설에게는 비장의 전략이 있었다. 그들은 햇불을 들었다. 한정된 장비를 24시간 가동해 공사단가를 낮춘 것이다. 근로자들은 낮에 40도 더위 속에서 일하고 밤에도 구름처럼 물려드는 모기떼와 싸우며 또 삼을 들었다. 그렇게 만든 도로를 지금도 현지인들은 ‘따논 까올리(한국 도로)’라고 부른다. 한국인 근로자들의 근면성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이다.

그때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까? 아마 ‘민족중흥’이나 ‘위대

가장 위대한 세대

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강요했다면, 폭동이 났거나 병이 나 쓰러졌을 것이다.

그때 우리 아버지들은 어떻게든 돈을 벌어 작은 집 하나 마련하고 내 새끼 원 없이 공부시켜 성공시키는 게 꿈이었다. 다들 그렇게 하니 나도 안 하면 이상한 시대였다.

한국인이 본래 그랬던 것은 아니다. 구한말에 온 서양 여행가들은 “남자들이 일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기록을 남겼다.(헤세 바르텍) “필요 이상 소유하면 탐욕적이고 타락한 관리에게 노출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이사벨라 비숍)

그러다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체제가 되고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으로 소작제가 혁파되면서 신분 상승을 위한 토대

가 마련됐다. 여기에 전통적인 가족 관념이 결부돼, 아버지들은 비록 나는 못 배우고 가난하지만 내 아이들 또는 손주들을 잘 가르쳐 출세시키면 그게 나의 성공이라고 믿었다.

한민족의 가장 위대한 세대는 1930년대 생이라고 한다. 그들은 봉건체제의 소멸, 6.25, 경제성장, 민주화까지 격동해온 역사의 주역이었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처음으로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휴대폰 벨소리 다운이나 식당 키오스크 주문에 서툴다고 그들의 헌신이 빛바랄 수는 없다.

이제 서서히 역사에서 퇴장하고 있는 우리의 위대한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김수영
사대 57

영화관을 찾았을 때 보고 싶었던 영화는 상영하지 않았다. 어떤 영화를 볼까 망설이다 직원에게 좋은 영화를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더 파벨맨(The Fabelmans)’을 추천해 주었다.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고 보게 되었다.

영화를 보면서 차츰 전개되는 내용이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이 어릴 때 겪었던 일화들로 엮여져 그의 반 자전적인 영화 스토리란 걸 알게 되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알고 있던 스피버그를 다시 보게 되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서 살아남은 후손 가운데 이름을 떨친 사람들이 많다. 아인슈타인 박사, 헨리 키신저 박사, 엘렌 그린스판, 할리우드 영화계를 주름잡는 영화감독 스티븐 스피버그 등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후손들이 미국의 경제계, 언론계, 방송계를 주름잡고 있다. 그 유명한 후손들

가운데 나는 스티븐 스피버그에 관해 얘기하고 싶다.

스피버그의 어머니 리아 아德勒(Leah Adler)가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영하는 식당에 기자가 찾아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 그녀의 아들 스피버그는 어릴 때 매우 소심했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그러다 보니 학교도 잘 안 가고 집 구석에 처박혀 그림이나 그리고 사진기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이나 찍고 놀았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학교에 가면 급우들이 항상 “더러운 유대인”이라고 놀려 대고 왕따를 당해 말할 수 없는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격려해 줬다고 한다.

특히 그의 할머니는 “너는 둘도 없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하며 그의 잠재 능력을 바라보고 앞으로 대성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를 위로했다고 한다. 스피버그 부모의 교육관이 보통의 부모들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

한인을 포함해 보통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학교에 무단으로 결석하면 호통을 치고 큰일이 난 것처럼 자녀에게 등교를 강요하지만 스피버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시켜

나가도록 뒷받침해 준 것이다.

어머니 덕분에 스피버그는 영화감독이 되어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다. ‘윈들러 리스트’로 아카데미 감독상까지 받게 된다.

그는 ‘인디애나 존스’, ‘라이언 일병 구하기’ 등 많은 영화 수작을 만들었지만, 윈들러 리스트는 홀로코스트를 겪은 유대인의 아픔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작품으로 자기가 어릴 때 겪은 아픔을 윈들러 리스트에 반영하기를 원했다고 한다.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 새미가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할리우드의 유명한 영화감독 존 포드를 소개받아 만나게 된다. 이 감독은 영화 제작이 얼마나 험난한 줄 아느냐며 자기 벽에 걸어 둔 그림들을 가리킨다. 그림 하나하나 무엇을 말하는지 말하라고 하자 새미는 장황하게 설명한다. 감독 존 포드가 수평선이 어디 있느냐며 묻자 새미는 밑에 있다고 대답한다.

또 다른 그림을 가리키며 수평선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새미는 밑(bottom)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 감독은 기상천외의 대답을 한다. “수평선이 밑에 있으면 흥미로운 일이고, 수평선이 위에 있으면 이 역시 흥미로운 일이고, 수평선이 중앙에 있으면 싫증 나는 일이다(When the horizon is on the bot-

tom, it's interesting. When the horizon is on top, it's interesting. When the horizon is in the middle, it's boring.)” 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면서 빨리 꺼지라고 소리친다.

새미는 무슨 뜻인지 잘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그의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하다 얼굴이 밝아지고 발걸음도 가벼워진다. 감독의 이 말이 스피버그의 창의력에 불을 지폈다.

이 장면은 실제로 스티븐 스피버그가 영화계에 뛰어들기 전 처음 만난 유명한 감독에게 발탁되는 과정을 담은 것이다.

이 영화에서는 불우한 가정을 묘사한다. 새미는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차차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을 비밀에 부친다. 어머니는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가족을 부양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새미는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영화계에 뛰어들게 된다.

어려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영화계에 투신하여 전무후무한 명감독으로 영화계에 우뚝 선 그에게 박수를 보낸다.

〈수필가〉

‘더 파벨맨(The Fabelmans)’을 보고



박제환
문리대 75
남가주 총동창회장

팬데믹으로 모임도 못한 채 줌으로 치러진 2020년 이사회에서 차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꿈같은 2년이 흘러갔다.

2020년은 회장단이 모든 행사를 줌으로 해야 했고, 2021년 회장단은 팬데믹의 제약을 극복해 가며 젊은 또래들이 단합해서 골프대회, 음악회, 피크닉, 송년 모임들을 활기차게 해냈다.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2022년. 그러나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각 행사일정이 뒤뉘리며, 사전계획을 힘들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한정된 인적자원을 무리하지 않게 활용하면서 각 행사들을 치르려고

노력했다. 경제가 정상을 되찾자 갑자기 골프의 인기가 치솟아 100명단위의 샷건을 할 수 있는 골프장 구하기가 힘들었다.

한국서 오는 가수 포르테 디콰트로와 함께 하는 이음음악회도 처음 하는 것이었으나(못하겠다고 그러지 왜 하겠다고 했느냐는 얘기를 들었어도) 해보자는 각오로 해보았다. 3년만에 200여명 가까운 동문, 친지들이 모인 헐리웃불은 영혼의 목마름을 달래주었다.

가을엔 많은 동문들이 모교의 홈커밍 데이 행사 참가차 한국으로 출국해 해마다 가던 북가주 비숍 대신 와이너리 여행을 갔다. 비숍 가족캠핑은 총동창회에서 20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행사로서 나 대에서 맥을 끊기가 싫었다.

대신 당일여행으로 LA에서 3시간 북쪽에 있는 Kohler Winery를 선택한 것이다.

지난해 처럼 가까운 공원에서 피크닉으로 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이 대목에서 생각난 한가지. 릭 워렌 목사의 얘기 “Even God can’t please everybody.” 되도록 다수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좋으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12월에는 처음으로 75학번이후의 관악세대만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했

다. 미국주류 사회의 골프대회 이름에서 힌트를 얻어 ‘관악 Invitational’로 명명했고 60여 명이 참석했다.

돌이켜보면 지난 8년간 총동창회의 임원으로 봉사해오면서 배운 것이 많아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팬데믹으로 인한 Great Resignation / Quiet Quitting 시대에 봉사할 사람을 구하



기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DOABLE한 일들을 찾아 해나갈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늦깎이 결혼, 신혼의 단꿈을 갖고 여러해를 즐거운 마음으로 동창회 봉사를 할 수 있었다. 그전엔 약 100여명 규모의 교회 청년부에서 봉사하며 청년회장으로도 일을 했다. 그리고 교회에 분란, 시련이 닥쳐왔다. 나의 봉사와는 상관없이 외부에

서 닥쳐온 엄청난 시련은 나를 방황하게 만들었다.

교회건 동문회건 이익, 이권추구를 앞세우게 되면 필연 누군가를 본의 아니게 멀리하게 되고 단체를 분란의 소용돌이에 빠트릴 수 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일생의 귀한 추억거리를 제공해야 할 장이 싸움터의 수렁, 비극의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동창회에서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양보하고 이런 사단을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다. 어느 단체든 고령화, 젊은세대의 유입감소 등으로 숙제를 안고 있는 있는 상황에서 가시같은 이슈를 만들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행사자체도 동문들이 건강하고 소속감을 느끼며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이 대의에 일조했는지 자성해볼 일이 고, 다음 회장단도 나뉘는 도전이 있겠지만 다가오는 도전들을 잘 극복해나가며 동창회를 무난하게 이끌어주실 것을 기원해본다.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나뭇잎은 낙엽이 돼 떨어지고/ 하늘은 어느새 잿빛으로 변했지요/ 추운 겨울날 길을 걸으며 생각했지요/ LA에 있다면 따뜻해 걱정이 없을텐데/ 그래서 겨울이 오면 캘리포니아 꿈을 꾸답니다.”

‘캘리포니아 드림(California Dreaming)’. 1960년대 중반 4인조 혼성 그룹 ‘더 마마스 & 파파스’가 불러 세계적으로 히트한 노래다. 당시엔 추운 겨울 곧 삶이 고단하면 누구나 캘리포니아를 꿈꿨던 모양이다. 1년 내내 포근한 그곳, 모든 게 넘쳐 흘러 캘리포니아를 황금빛 세계로 노래한 것이다. 이젠 캘리포니아 찬미가로 굳어진 추억의 팝송이다.

노래는 홍콩영화 ‘중경삼림(Chungking Express)’의 OTS로 쓰여져 신세대 사이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마켓

여종업원의 사랑 이야기를 코믹하고 때로는 애잔하게 그려 할리우드에서도 꽤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캘리포니아 드림’ ... 어쩌면 ‘포티나이너스(49ers)’, 이른바 ‘1849년의 사나이들’에게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 이해 금이 발견되자 저마다 꿈을 좇아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다. ‘골드러시’다.

이들이 캐낸 ‘꿈’은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300억 달러. 실로 엄청난 규모였다. 멀리 유럽에서, 그리고 호주에서, 심지어 중국에서까지... ‘캘리포니아 드림’은 계속 이어졌다.

노래에서 마냥 독일의 잿빛 하늘에서 추위에 떨던 리바이 스트라우스도 캘리포니아행 화물선을 탔다. 금광촌에 텐트를 팔아 꿈을 이루려 한 것. 천막을 만들고 난 짜투리를 버리기 아까워 바지를 지으니 그럴듯 했다. 그가 만든 ‘리바이스’ 청바지는 얼마안가 글로벌 패션시장을 흔들었다. 가난한 이민자의

‘캘리포니아 드림’

‘캘리포니아 드림’은 이처럼 엉뚱한 곳에서 이뤄지기도 했다.

끊이지 않는 ‘캘리포니아 드림.’ 이번엔 오렌지가 노다지가 될 줄이야. 괴혈병이 번지자 오렌지가 치료제로 뜨게 됐다. 품귀현상이 일어나 한 개에 1달러까지 치솟자 오렌지 밭은 황금의 농장으로 변했다. 이어서 생겨난 게 ‘선크스트’다. 처음으로 오렌지 주스가 만들어진 것이다.

‘캘리포니아 드림.’ 꿈을 꾸면 모든 게 황금으로 변한다고 해서 ‘골든 스테이트’란 말이 나왔을까. 세상을 바꿔놓은 디지털 혁명. 인터넷의 사이버 공간에서 황금을 캐내 ‘디지털 러시’의 신화를 만들어 낸 곳도 캘리포니아다. ‘닷컴’ 기업은 여기저기서 억만장자를 양산해 내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캘리포니아 드림’을 기대하며 몰려온다.

영화 ‘중경삼림’에서도 주인공은 꿈을 좇아 훌쩍 캘리포니아로 떠난다. 새로

운 희망, 새로운 사랑이 싹트는 캘리포니아. 그래서인지 그녀가 남긴 쪽지는 사뭇 도전적이다. “제가 팔고 있는 식품엔 모두 유효기간이 찍혀 있지요.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만일 있다면 우리 사랑은 만년으로 하고 싶어요.”

‘캘리포니아 드림’에도 유효기간이 있을까.

동부가 폭설에 한파까지 덮쳐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하는 등 지난 연말 연시에 항공대란이 일어났다. 테네시에 살고 있는 동문 한 분이 문자를 보내왔다. “수돗물도 쫄쫄, 전기도 끊겨 마치 원시에 살고 있는 느낌이에요.”

캘리포니아는 포근한 날씨에 겨울비가 흠뻑 대지를 적서 온통 그린을 입힌 듯 하다.

150년 넘게 이어지는 ‘캘리포니아 드림.’ 더 마마스 & 파파스’를 따라 ‘캘리포니아 드림’을 한 번 크게 불러보면 어떨까. 유효기간이 무한대인.

‘아프지마, 에티오피아’ 흥건 동문의 의료선교 서울아산병원 갤러리, 밀알 미술관 등 유화 전시회 총 66점 … 수익금은 전액 아프리카 돕기에 쓰여



흥건
의대 64

서울 아산병원장에 취임한 박승일 원장님께 축하 인사를 드리면서 혹시 아산병원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할 수 있나 조심스럽게 문의했다. 그런데 받은 답은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년 9월 공개 신청을 받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선 아마추어는 안되고 미술대학을 나온 전업 화가에게만 전시의 기회가 주어지며 또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한정된다고 하니 나로서는 둘 다 해당이 안됐다. 그럼에도 그동안 준비한 작품들 사진을 찍고 Webhard.co.kr에 올리고 나서 한참 기다렸다.

다행히 갤러리 담당자에게서 일주일 동안 전시회를 허락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미 에티오피아에서 그린 그림들로 2021년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 전시를 해 준비된 작품들이 많이 있었으나 욕심으로 다시 여러개를 추가해 그리면서 한국에 계신 김윤환 교수님과 긴밀한 연락을 취했다.

김 교수님은 내가 에티오피아에서 5년 동안 의료사역을 할 때 Interventional Radiology Program을 도와주신 분들중의 한분이다. 고대 안암병원 교수로 정년 은퇴하시고, 전주 예수병원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혹시 전주에서도 전시회를 할 수 있나 문의했다.

아산병원 갤러리

김 교수님은 처음 질문이 지난 2016년 서울 명성교회에서 전시회를 했을 때 작품판매수익금을 어떻게 했냐고 물으셔서, 당시 에티오피아의 명성의 과대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전액 기증했다고 답을 했다.

그러자 이번에 전시회를 하면 수익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물어보아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니, 본인이 몸담고 봉사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의사회에 기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의료선교사로 봉사하기를 원

하는 젊은 의사나 의대생들이 국제기독교의사회(International Christian Medical & Dental Association)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한다는 것이다.

올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열리는 회의와 2026년 한국 제주에서 그 회의를 개최하는데 제 3국의 가난한 의사들의 초청 비용에 기금으로 쓰면 좋겠다는 제의를 해와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 곳에서 전시회를 펼치고 모금 운동을 하기로 했다.

그후 모든 과정이 속도를 내어 진행됐다. 서울 삼성병원 본관 입구 맞은편에 위치한 밀알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고, 연이어 대전과 전주에서의 일정을 잡게 되었다.

사실 처음 아산병원 갤러리에서만 전시를 하려고 생각했을 때는 전시실의 면적이 최대 가로 넓이가 30m(100 feet 미만)에 불과해 25점의 작품만 갖고 가려했다.

그러나 밀알 미술관은 크기가 두배나 돼 보다 많은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밀알 미술관의 전시가 확정된 후 대전의 천성감리교회의 On Art Gallery와 전주 예수병원 구바울기념의학박물관의 전시가 차례대로 계획됐다.

한국으로 모든 작품을 가지고 가기 전 우선 시카고에서 선을 보이기 위해서 다운타운에 위치한 Palette & Chisel Academy of Fine Arts에서 지난해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전시를 하였고 본격적으로 작품 운송을 준비했다.

작품들을 모두 세어보니 도합 크고 작은 것 합하여 66점이나 됐다. 5피트나 되는 큰 캔버스 운반이 쉽지 않았다. 우선 상자를 짜서 모든 캔버스를 그대로 넣어서 보내려면 항공화물로

는 엄청난 비용이 들겠고, 컨테이너에 넣어서 배편으로 보내려면 대략 2달이 소요되지만 요즘 화물 운송대란으로 날짜를 맞추지 못할 것 같았다.

고민 끝에 모든 작품의 캔버스를 나무 프레임에서 떼어내고 돌돌 말아 비행기에 탈 때 추가 수화물로 체크인하고 과태료를 물기로 했다. 이미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할 때 모든 그림들을 캔버스에서 떼어내 돌돌 말아 가지고 와

서 시카고에서 다시 스트레치를 한 경험이 있고 모든 장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하기 쉬웠다.

아산병원 전시는 코비드 때문에 병원출입에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했다. 이 바람에 전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친구들도 적지 않았다. 많은 외래 환자와 보호자들이 전시장을 방문하였고 박승일 원장님을 비롯,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녀

갔다.

전시회를 하는동안 국민일보의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은퇴 의사의 마지막 사랑, 화폭에 담긴 에티오피아”라는 제목의 기사가 9월 16일자 인터넷에 실렸다.

전주 구바울기념의학 박물관

대전 천성교회의 전시실은 조명시설이 잘 되어있어서 그림들이 한층 돋보였다. 천성교회 On Art Gallery에서의 전시가 끝난 뒤 바로 전주로 내려갔다.

전주 구바울기념의학박물관에서 전시회를 갖기 전 예수병원 예배실에서 “아프지마, 에티오피아” 기념 음악회를 가지고 여러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참석한 환자들과 직원들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기회에 전주예수병원의 역사와 그 일대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지를 알게 돼 내겐 큰 축복이었다. 1892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7명의 선발대가 입국, 호남지역 선교가 시작됐다. 이듬해 Reynolds 목사가 전주 서문교회의 전신인 예배 처소를 초가에서 마련하고, 그때부터 전주를 기점으로 선교가 시작됐다.

1898년 Dr. Mattie Ingold라는 30세의 여자의사가 처음 서양식 의료를 시작하는데 이어 1902년 W. B. Harrison(하위럼) 선교사가 호남 최초로 서양식 건물을 완공하고 예수병원이 문을 열게 됐다.

이어 Dr. Thomas Daniel(단의열) 3대 원장이 30 병상 규모 병원을 건축했는데 화재로 소실됐다. 해방후 Dr. Paul S. Crane(구바울) 7대 원장이 부임, 기생충 박멸운동 등을 전개했다.

2009년 예수병원내에 전주시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이 세워졌다. 병원 맞은편 동산에 위치한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올라가 어린 자녀들을 먼저 묻고 계속 사역을 하다가 그앞에 묻혀있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그때 그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분들의 신앙과 사랑의 노고에 고개가 숙여졌다.

하인 이자익과 주인 조덕삼

이곳에는 William Junckin(전위럼) 부부와 태어나자마자 어린 나이에 죽은 조지, 시드니, 프란시스 등 자녀들이 나란히 묻혀있다. 그리고 William Reynolds(이눌서), L. B. Tate와 여동생 Tate 등의 묘비가 현대식 건물의 예수병원을 바라보고 있다.

전주에 있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금산에 있는 역사적인 “ㄱ” 기억자교회 금산교회를 방문한 일이다. 김종원 담임목사님을 뵈고 차한잔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이자익이라는 소년이 6세에 부모를 잃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찾아간 곳이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 용화마을 어느 큰 집이었다. 집 주인에게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면 정성껏 다하겠다고 자청하여 맡은 것이 마부의 일이었다.

집주인 조덕삼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목고가는 손님중에 L. B. Tate(최의덕) 선교사로 부터 복음을 듣고 사랑채를 예배 장소로 내어주고, 1904년 조덕삼과 마부인 이자익 청년이 주인을 따라 예수를 믿게 되고 두정리교회(이후 금산교회로 호칭)를 섬기게 되었다.

이 둘은 1907년 영수로 임명되었고 그해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마부 이자익이 장로에 피택되고, 투표에서 피택되지 못한 지주 조덕삼은 발언권을 얻고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모바일 클리닉(이동진료)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장면.



틈새축제에 법계를 머리에 이고가는 사제들과 주민들의 행렬.



시골장터에서 주민들이 흥겹게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

금산의 '기역자(ㄱ) 교회'를 아십니까? '하인'이 목사 부임하자 '주인'이 장로가 돼 섬겨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의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듣고 금산교회 교인들은 조덕삼 영수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그 이후 1910년 평양에 있는 장로회신학교에 이자의 장로가 입학하여 5년간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조덕삼 장로는 모든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였고 강단을 지키는 수고를 담당하였다.

1915년 6월 15일 제8기 졸업식에 이자익도 졸업장을 받고 8월 25일 금산교회의 2대 목사로 부임하였다. 그 이후 이자의 목사와 조덕삼 장로 등의 활동으로 금산교회는 눈부신 부흥을 하게 되었고 전라노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자의 목사는 훗날 세 번이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목회자를 양성키 위해 대전고등성경학교를 설립하였고, 대전신학교 (현 대전신학대학교)를 세우고 초대 교장을 지냈다.

‘남녀칠세 부동석’의 교회

그런데 금산교회 건축의 특징은 기역자형으로 강단과 강대상은 남자를 향해서 있었기에 설교자는 여성쪽을 볼 수가 없었으며, 여성들은 설교자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그저 휘장 막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만 듣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유교적 바탕위에 교회가 출발했는지 알 수 있고 ‘남녀칠세 부동석’을 지키지 않았다면 교회는 더 많은 핍박을 받았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강단 뒷쪽으로 목사들이 출입하는 조그만 쪽문이 있는 것이 특이하다. 그 문을 드나들었던 설교자들은 자신의 허리를 굽히지 않고는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겸손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그 문을 통과할때마다 배우게 되었다.

사실 나는 이자의 목사의 손녀인 이(최)영자 권사님과 함께 시카고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함께 일을 한 경험이 있어서 금산교회 이야기를 이미 들어서 알았고 꼭 한번 방문하고 싶었다.

혹시라도 전주지방을 가시는 기회가 생기면 꼭 금산교회를 방문하여 믿음의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몸소 체험할 수 있기를 권한다.

한국에서 마지막 주일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위해 일생을 바친 외국인 선교사와 그 가족 145명이 다른 이들과 함께 묻혀있는 곳이다.

당시 변방이던 ‘Corea’에 복음의 빛을 나누기 위해 헌신하고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여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고, 일부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많은 위험을 감수하였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사회를 살펴보면



전주에 소재한 금산교회. 기역자 교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전주 예수병원에서 열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의료선교를 위한 금금모금 음악회.

인 11월 6일 영등포 대길교회창립 66주년 기념 예배에 김윤환 교수 부부와 함께 참석하고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찾았다.

여기서도 어려운 환경에서 사역을 하던 초창기 외국인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머리가 숙여졌다. 구한말과

이들을 통하여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확인할 수 있다.

1876년 시작된 조선의 개항은 비록 외세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으나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시발점이 되었다.

개항에 앞서 만주에서 활동하던 John Ross 선교사는 봉천(현 심양)에

서 조선인들을 만난 것을 계기로 성경의 한글 번역에 착수하여 1882년 첫 한글 성경을 출간,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인쇄판 한글 성경이 국내로 유입되었다.

특히 William Hall과 Rosetta S. Hall은 1891년 의료선교사로 조선에 와서 William Hall은 청일 전쟁의 와중에서 치료에 헌신하다가 3년만에 순직하고, Rosetta는 남편 순직후 조선으로 돌아와 45년 동안 헌신했다. 기흥병원(평양)과 조선여자의학강습소(서울)를 설립했으며우리나라 첫 여의사(박 에스더)를 배출했다.

William Hall의 아들 Sherwood Hall은 서울에서 태어나, 영국인 아내 Marian Hall과 함께 해주 구세병원에서 사역하다가 일제 강압에 의해 조선을 떠나게된 1940년까지 섬겼고,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 전문 요양병원을 설립하였고 결핵 퇴치 모금을 위해 크리스마스실을 제작했다.

인천공항에서 콩나물 시루 같은 이코노미 클래스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10시간 이상 샌프란시스코로, 또 몇 시간 공항에서 기다린 후 시카고로 가는 비행기를 무사히 연결하여 집을 찾고 집에 도착하고 보니 자정이 훨씬 넘었다. 거의 석달동안을 한국에서 지내 몸은 피곤했지만 내 신앙을 재충전하는 계기가 돼 한국서 만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필자의 한국 전시회 일정

서울 아산병원 갤러리 2022년 9월 16~23일

서울 밀알미술관 9월 24일~10월 5일
On ART Gallery 대전천성감리교회 10월 8~13일

전주 구바울기념의학박물관 10월 15~20일

Far East Gallery(극동갤러리) 10월 24~11월 3일

군포 지샘병원 11월 7일~19일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총 모금액 \$1,003,970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 -故고광선(공대57)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조지아 - 주종광(약대60)
조지아 - 허지영(문리66)

골드이사 (\$10,000이상)

남가주 - 김경숙(간호68)
남가주 - 김일영(의대65)
남가주 - 노명호(공대61)
남가주 - 박창규(약대59)
남가주 - 서치원(공대69)
남가주 - 성낙호(치대63)
남가주 - 심화섭(약대61)
남가주 - 이기준(법대54)
남가주 - 이병준(상대55)
남가주 - 이흥표(의대58)
남가주 - 한홍택(공대60)
남가주 - 벤자민 홍(문리53)
네바다 - 정상진(상대59)
뉴잉글랜드 - 박영철(농대64)
뉴잉글랜드 - 윤상래(수의62)
뉴잉글랜드 - 정선주(간호68)
뉴잉글랜드 - 최홍균(공대69)
북가주 - 김정희(음대56)
북가주 - 민병곤(공대65)
북가주 - 전해경(문리67)
시카고 - 이용락(공대48)
워싱턴주 - 양남주(명예이사)
워싱턴DC - 이태영(법대60)
조지아 - 김현희(간호59)
코네티컷 - 오인석(법대58)
필라델피아 - 김영우(공대55)

실버이사 (\$5,000이상)

남가주 -故김원경(약대59)
남가주 - 김병연(공대68)

남가주 - 박종수(수의58)
남가주 - 이종도(공대66)
남가주 - 정재훈(공대64)
남가주 - 한귀희(미대68)
루지애나 - 강영빈(문리58)
워싱턴주 - 김재훈(공대72)
워싱턴DC - 남옥현(경영84)
조지아 - 김경숙(사대64)
조지아 - 김태형(의대57)
필라델피아 - 이만택(의대52)
필라델피아 - 신의석(공대53)
필라델피아 - 김영우(공대55)

종신이사 (\$3,000이상)

남가주

故노재성(법대58)
故서영석(의대55)
故오재인(치대33)
故윤낙승(의대60)
강신용(사대73)
곽웅길(문리59)
권기홍(의대60)
권봉성(문리64)
김기형(상대75)
김대중(의대70)
김동훈(의대71)
김보연(간호63)
김상찬(문리65)
김성호(법대64)
김수영(사대57)
김재영(농대62)
김정빈(공대66)
나두섭(의대66)
류재풍(법대60)
박명근(상대63)
박용필(문리66)
박원준(공대53)
박윤수(문리48)

방명진(공대73)
백만일(공대64)
서동영(사대60)
신건호(법대53)
신영찬(의대63)
심상은(상대54)
안병일(의대63)
오홍조(치대56)
이근원(공대67)
이명선(상대58)
이세열(사대57)
이승훈(상대74)
이청광(상대61)
임낙균(약대64)
임용오(의대57)
전희택(의대58)
정동구(공대57)
정임현(간호72)
정철룡(의대55)
제영혜(가정71)
조용원(문리66)
조한원(의대57)
차민영(의대76)
차종환(사대54)
하기환(공대66)
한효동(공대58)
홍성선(약대72)
홍종화(약대74)

뉴욕

故김광호(문리62)
故한창섭(문리57)
강에드워드(사60)
고애자(음대57)
권영국(상대60)
김승호(공대71)
김종률(사대51)
김한중(의대56)

김해암(의대52)
배정희(사대54)
서영숙(간호67)
석창호(의대66)
신응남(농대70)
윤종숙(약대66)
이강홍(상대60)
이기영(농대70)
이대영(문리64)
이재덕(법대60)
이재량(상대61)
이전구(농대60)
이준행(공대47)
이태호(상대58)
최수용(상대55)
최영태(문리67)
추재욱(의대57)
한태진(의대58)
허선행(의대58)

뉴잉글랜드

故고일석(보건69)
故박경민(의대53)
김광수(문리73)
고종성(사대75)
김문소(수의61)
김용구(공대66)
오세경(약대61)
윤선홍(치대64)
이의인(공대68)
전신의(문리57)
정정욱(의대60)
정태영(문리71)
조만연(상대58)
홍지복(간호70)

워싱턴DC

공순옥(간호66)

방은호(약대43)
박평일(농대69)
서희열(의대57)
오인환(문리63)
이내원(사대58)
이선구(문리65)
이윤주(상대63)
최지원(의대61)

미시간

故남상용(공대52)
장병진(공대61)
정태(의대57)

샌디에고

임천빈(문리61)

북가주

강재호(상대57)
손석보(공대68)
윤정옥(약대50)
한만섭(공대49)

시카고

강영국(수의67)
심상구(상대63)
이재희(치대67)
장윤일(공대60)
조봉완(법대53)
최의필(의대53)
한재은(의대59)

오레곤

김상순(상대67)
이은상(상대52)

미네소타

강연식(사대58)

권기현(사대53)
김권식(공대61)
김태환(의대58)
남세현(공대67)
민홍기(문리61)
변우진(인문81)
조형준(문리62)
황호숙(사대65)

아이오와

김시근(공대72)

오하이오

김용현(경원66)
이지우(의대68)

워싱턴주

故김영일(공53)
이명자(간호74)
이희백(의대55)
임민한(공대84)

조지아

김용건(문리48)

커네티컷

故유시영(문리68)

플로리다

김중권(의대63)

텍사스

박태우(공대64)
이광연(공대60)
조시호(문리59)

필라델피아

고병은(문리55)
김현영(수의58)
서종민(공대64)
손재욱(가정77)
신성식(공대56)
주기목(수의68)

하틀랜드

김경숙(가정70)
김명자(문리62)
배규영(사대68)
오명순(가정69)
이교락(의대53)
이상강(의대70)

휴스턴

박진섭(의대67)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213-908-5586

www.snuaa.org
news@snuaa.org

남가주지역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공대66)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 그룹

한태호(인문대 75) www.haanlaw.com

213-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A, CA 90010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사대 81)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 Of Kyung Hee Lee

이경희(인문대 83) imin@iminusa.net

213-385-4646

3435 Wilshire Blvd.,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rit Realty

이종묘(간호대 69) jenniecee@gmail.com

714-396-0624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정정우(수의대 74)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vello, CA 90640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법대 50)

213-382-6660

3575 Wilshire Blvd., LA, CA 90010

병원

실로암병원

정균희(의대 64)

213-386-8602

2528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동물병원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64)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 76)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Gilbert Drugs

최무식(약대 66)

714-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김경무(공대 69) kyungmookim@yahoo.com

(213) 616-1390

114 Washing Blvd., #C, Marina Del Ray, CA 90292

SHIN-YONG KANG CPA

강신용(사대 73) 공인회계사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Lee Kang Won CPA

이강원(인문대 76)

(213) 387-1234

3600 Wilshire Blvd., #930, LA, CA 90010

GSK LLP

강호석(상대 81) cpa@hosukgangcpa.com

(213) 380-5060 (LA, CA)

(714) 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장 준(인문대 85)

(818) 77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상대 68) choontaikim@gmail.com

(213) 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CPA

김원철(농대) kimandhwang@cs.com

213-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www.linkboxusa.com

김원탁(공대 65) linkboxusa@gmail.co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Turbo Air, Inc.

서치원(공대 69)

(310) 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공대 64) jchung@taycoeng.com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roess, CA 90630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부품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818-720-2373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뉴욕지역

공인회계사

KI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상대 64)

1430 Broadway St., 306, New York, NY 10018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www.nycgolfcenter.com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petershinesq@gmail.com

718-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I #UL-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윤의규(상대 82) edwarded.yun@edwardjones.com

201-978-7055

560 Sullivan Ave St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201-302-9774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changhsuk@aol.com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의대 72) cleel34597@aol.com

718-762-4400

40-5 Br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haeahm@aol.com

212-879-2322

230 East 73Rd Street St., 1A, New York, NY 10021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718-229-1188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박종효 소아과

박종효(의대 79)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수의대 81)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의대 73)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공대 71)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전미주 서울대 동문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6대 노명호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usa30@gmail.com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2.7.1 - 2023.6.30; 제2차 회기: 2023.7.1 - 2024.6.30) 볼드는 제 2차회기

남가주

강경수(법 58)
강동순(법 59)
강윤희(간 46)
강창만(의 58)
강호석(상 81)
강홍제(상 53)
고석규(치 65)
고윤석(공 62)
권기상(대 72)
김건진(문 62)
김경(문 63)
김경무(공 69)
김경수(사 54)
김경욱(미 61)
김광은(음 56)
김교복(농 63)
김국간(치 64)
김근(농 78)
김난영(공 53)
김동산(법 59)
김명숙(농 58)
김문엽(농 83)
김범수(문 61)
김병연(공 68)
김병완(공 58)
김상찬(문 65)
김석구(공 66)
김석홍(법 59)
김성건(공 56)
김성호(법 64)
김수향(간 68)
김순길(법 54)
김순자(치 57)
김영덕(법 58)
김영충(치 66)
김옥경(생 60)
김원탁(공 65)
김원호(약 63)
김일영(의 65)
김은숙(미 62)
김정(치 59)
김정호(농 59)
김중범(상 64)
김종표(법 58)
김준일(공 62)
김재영(농 62)
김진식(공 66)
김창진(공 77)
김태환(문 78)
김희성(음 00)
김학철(의 55)
김희창(공 64)
니두섭(의 66)
노명호(공 61)
니승욱(문 59)
문경호(문 59)
문병길(문 61)
박명근(상 63)
박부강(사 64)
박상원(대 20)
박서규(법 56)
박영욱(사 55)
박용 (문 89)
박우선(공 57)
박원준(공 53)
박은숙(미 62)
박인수(농 64)
박인창(농 65)
박임하(치 56)
박자경(생 60)
박정모(문 66)
박중수(수 58)
박찬호(농 63)
박창규(약 59)
박취서(약 60)
박호현(의 52)
박홍근(공 64)
박희자(음 68)
방명진(공 73)
배동완(공 65)
백승호(치 55)
백혜란(미 70)
벤자민 홍(문 53)
서동영(사 60)
서명희(농 67)
서세진(음 62)
서의원(공 66)
서치원(공 69)
성낙호(치 63)
성주경(상 68)
손기용(의 55)
순학식(공 61)
송명국(문 81)
신건호(법 53)
신동국(수 76)
신영찬(의 63)
신정연(미 61)
심재호(공 75)

양태준(상 56)
오윤표(음 56)
오선웅(의 63)
오찬수(약 57)
오형원(의 53)
원용민(공 58)
위종민(공 64)
유석홍(상 61)
유영자(음 63)
유이중(농 74)
유준석(공 52)
육태식(의 61)
윤경민(법 55)
윤석철(상 60)
윤희성(치 65)
이강훈(치 65)
이건섭(치 62)
이건일(의 62)
이덕승(의 54)
이미정(의 78)
이방기(농 59)
이범모(치 74)
이법식(공 61)
이서희(법 70)
이상자(간 76)
이소희(의 61)
이영수(상 60)
이영현(간 70)
이용한(공 64)
이원익(문 73)
이원택(의 71)
이익삼(사 58)
이장길(치 63)
이재권(법 56)
이재룡(공 71)
이정근(사 60)
이정화(공 52)
이종모(간 69)
이준호(상 65)
이진영(의 65)
이창무(공 54)
이창신(법 57)
이채진(문 55)
이청광(상 61)
이해영(공 56)
이호(음 92)
이호진(간 74)
이홍표(의 58)
이희충(공 68)
임낙균(약 64)
임동규(미 57)
임동호(약 55)
임문빈(상 58)
임재영(공 59)
임창희(공 73)
장근숙(간 73)
장기열(치 55)
장기창(공 56)
박명근(상 63)
장소현(미 65)
장원경(미 73)
장윤희(사 54)
장인숙(간 70)
전낙관(사 60)
전원일(의 77)
전상욱(사 52)
정동주(생 72)
정병혁(농 70)
정승만(의 66)
정예현(상 63)
정연웅(상 63)
정인환(법 54)
정재형
정진우(의 66)
정형민(문 71)
정환(공 64)
조경애(음 64)
조상하(치 64)
조상호(농 51)
조선주(간 69)
조재국(농 67)
주민희(음 51)
주정래(상 65)
지종근(농 56)
치종환(사 54)
최복철(공 70)
최영구(상 61)
최영순(간 69)
최영지(미 62)
최용완(공 57)
최종권(문 59)
최교훈(농 63)
한동수(의 60)
한성구(상 53)
한원민(의 59)
한중철(치 62)
한홍택(공 60)
한홍동(공 58)
현기용(문 64)

홍병각(문 55)
홍선례(음 70)
홍선일(공 71)
홍수웅(의 59)
황건홍(공 55)
황현상(의 55)

뉴욕

강교숙(간 73)
강에드워드(사 60)
계동휘(치 67)
고순정(간 69)
고애자(음 57)
곽도섭(문 45)
권영국(상 60)
권문웅(미 61)
권정덕(의 58)
금영천(약 72)
김광현(미 57)
김광호(의 66)
김기택(수 81)
김동환(약 60)
김문경(약 61)
김병권(문 63)
김복영(간 69)
김세환(공 65)
김승호(공 71)
김영길(문 62)
김영수(법 66)
김영숙(약 53)
김영철(의 55)
김영희(간 53)
김완주(의 54)
김용연(문 63)
김우영(상 60)
김옥현(의 59)
김유순(간 64)
김정희(약 56)
김정희(간 69)
김창수(약 64)
김창화(미 65)
김학자(간 59)
김현중(공 63)
리준우(음 65)
문석민(의 52)
민인기(의 67)
박건이(공 60)
박경희(음 57)
박상원(음 69)
박수안(의 59)
박순영(법 56)
박승화(간 69)
박재은(미 63)
방준재(의 63)
배상규(약 60)
배정숙(간 73)
변호련(간 63)
서랑(의 63)
서충선(사 57)
석창호(의 66)
선종철(의 57)
성기로(약 57)
손갑수(약 59)
손원배(농 70)
송근숙(간 66)
송기인(의 60)
송웅길(대 69)
신두식(의 58)
신승남(농 70)
신정자(간 62)
신춘희(간 56)
안태홍(상 65)
양명자(사 63)
양성택(상 66)
오용호(의 66)
오용환(약 68)
우규환(사 60)
우상영(상 59)
원인순(문 67)
유재섭(공 65)
유택상(문 58)
유호근(문 71)
유병남(사 62)
윤영섭(의 57)
윤인숙(간 63)
윤철(문 54)
윤희정(문 59)
이강홍(상 60)
이명종(공 72)
이상근(경 84)
이상무(의 56)
이영일(의 60)
이영재(사 58)
이유성(사 57)
이정은(의 58)
이재덕(법 60)
이재진(의 59)
이태봉(의 56)
이태안(의 61)

이해청(약 62)
이형근(수 60)
이홍우(공 50)
전성진(사 54)
전병삼(약 54)
정동성(상 58)
정해민(법 55)
정화용(사 61)
조남천(사 59)
조대영(공 61)
조득환(의 61)
조중수(공 64)
차국만(상 56)
차수민(약 71)
최수용(사 55)
최승웅(의 61)
최영태(문 67)
최정웅(시 63)
최한용(농 58)
최혁(음 72)
최형무(법 69)
한병용(문 71)
한승순(간 70)
허선행(의 58)
허영자(약 63)
허용웅(상 63)
허유선(생 83)
현건섭(공 55)
홍정표(음 67)
홍종만(공 64)

뉴잉글랜드

곽노교(상 51)
김경일(공 58)
김기룡(공 71)
김선혁(약 59)
김성곤
김옥동(사 58)
김형범(문 57)
박영철(농 64)
박종건(의 56)
송미자(농 62)
윤영자(미 60)
윤상래(수 62)
이강원(공 66)
이규진(약 60)
이금하(문 69)
이은주(음 73)
장용복(공 58)
정선주(간 68)
정정욱(의 60)
조만연(상 74)
주창준(의 50)
최선희(문 69)

네바다

김영중(치 66)
김택수(의 57)
김상선(사 57)
이학은(약 57)
정상진(상 59)

미네소타

남세현(공 67)
문성민(공 88)
변우진
성욱진(치 87)
송세진(치 78)
송창원(문 53)
이창재(문 51)
주한수(수 62)

북가주

강윤희(간 72)
강재호(상 57)
강정수(문 61)
권오형(사 61)

김기덕(문 74)
김정희(법 56)
김현왕(공 64)
김희경(음 73)
남광순(음 64)
노상규(공 60)
민병덕(상 69)
박경용(약 63)
박서규(법 56)
박영훈(공 72)
박중섭(법 53)
부영무(치 72)
손창순(공 69)
이성원(상 57)
신규영(공 64)
안호삼(문 58)
오명주(간 77)
온기철(의 65)
위장호(의 67)
이강우(문 59)
이성원(공 65)
이성형(공 57)
이은수(사 64)
이장우(문 72)
이정남(공 63)
이창한(공 56)
이관모(공 55)
임승패(문 66)
임정란(음 76)
전병련(공 54)
정지선(상 58)
정춘임(간 67)
정한규(의 63)
조태묵(사 60)
김기남(법 52)
김명철(공 60)
김영란(사 58)
김용택(의 53)
김윤호(공 64)
김용환(치 88)
김해식(공 59)
김희주(의 62)
나연수(사 54)
남춘일(사 69)
박영태(상 63)
박영호(공 64)
박은희(미 68)
박인영(의 69)
박일영(문 59)
박홍우(문 61)
백순(법 58)
백용현(공 64)
서윤석(의 62)
서희열(의 57)
석균범(문 61)
양광수(공 73)
오광동(공 52)
오인환(문 63)
우관해(음 63)
우제형(상 54)
원종민(약 57)
유달(의 61)
유영신(인 74)
유영준(의 70)
유영준(의 74)
유정희(수 60)
유한창(공 69)
유홍열(문 74)
이건형(수 54)
이규양(문 62)
이내원(사 58)
이선구(문 65)
이상배(의 57)
이수안(공 54)
이연주(치 88)
이영덕(사 61)
이영목(공 59)
이윤주(상 63)
이재승(의 55)
이중국(의 52)
이준영(치 74)
이진상(공 57)
이철수(공 61)
이해청(약 62)
정원자(농 62)
조영희(문 66)
조화유(문 61)
천건희
최경수(문 54)
최동호(문 68)

샌디에고

오계환(공 64)
윤진수(의 57)
이문상(공 62)
이영신(간 77)
이휘영(법 59)

시카고

강영국(수 67)
구경희(의 59)
구영미
김길준(의 59)
김갑중(의 57)
김규호(의 58)
김동희(공 66)
김병윤(문 65)
김사직(상 59)
김성일(공 68)
김승주(간 69)
김용주(공 69)
김용환(공 71)
김정수(문 69)
김현주(문 61)
노영일(의 62)
림근식(문 57)
민영기(공 65)
박정일(의 61)
박창욱(공 56)
서상현(의 65)
소진문(치 58)
송재현(의 46)
신석균(문 54)
안신훈(농 61)
안영학(문 57)
안창현(의 55)
오명자(간 60)
육길원(사 59)
노경순(사 61)
육덕상(치 62)
윤봉수(간 69)
이경미(미 69)
이덕수(문 58)
이동균(공 75)
이소희(간 68)
이승자(사 60)
이시영
이영섭(수 56)
이영우(문 66)
故 이윤모(농 57)
이종일(의 65)
이종일
임영신(의 56)
임현재(의 59)
장윤일(공 60)
전현일(농 62)
정승규(공 60)
정연학(공 63)
정은성(음 04)

조대현(공 57)
최대한(의 53)
최혜숙(의 53)
최희수(문 67)
한익일(공 62)
한재은(의 59)
홍청일(약 57)
황소나
황치룡(문 65)

알래스카

윤제중(농 55)

오레곤

김영자(간)
박희진(농 78)
최용성(의 55)
윤태근(상 69)
한영준(사 60)

오하이오

김태웅(의 61)
명인재(자 75)
송용재(의 63)
유덕영(공 57)
이영웅(의 62)

워싱턴DC

강길종(약 69)
고무한(법 57)
곽명수(문 65)
권정도(치 63)
권철수(의 68)
김동훈(법 56)
김명자(법 52)
김명철(공 60)
김영란(사 58)
김용택(의 53)
김윤호(공 64)
김용환(치 88)
김해식(공 59)
김희주(의 62)
나연수(사 54)
남춘일(사 69)
박영태(상 63)
박영호(공 64)
박은희(미 68)
박인영(의 69)
박일영(문 59)
박홍우(문 61)
백순(법 58)
백용현(공 64)
서윤석(의 62)
서희열(의 57)
석균범(문 61)
양광수(공 73)
오광동(공 52)
오인환(문 63)
우관해(음 63)
우제형(상 54)
원종민(약 57)
유달(의 61)
유영신(인 74)
유영준(의 70)
유영준(의 74)
유정희(수 60)
유한창(공 69)
유홍열(문 74)
이건형(수 54)
이규양(문 62)
이내원(사 58)
이선구(문 65)
이상배(의 57)
이수안(공 54)
이연주(치 88)
이영덕(사 61)
이영목(공 59)
이윤주(상 63)
이재승(의 55)
이중국(의 52)
이준영(치 74)
이진상(공 57)
이철수(공 61)
이해청(약 62)
정원자(농 62)
조영희(문 66)
조화유(문 61)
천건희
최경수(문 54)
최동호(문 68)

최재귀(미 63)
한익생(수 60)
홍영석(공 58)
황보한(공 56)

워싱턴주

김옥영(문 52)
김인배(수 59)
김재호(상 54)
김재훈(공 72)
류성열(공 72)
민영기(공 65)
박진수(의 56)
변종해(법 58)
안승적(법 59)
양용관(수 62)
윤석진(문 64)
윤태근(상 69)
이길송(상 57)
이명자(간 74)
이승윤(공 90)
이원섭(농 77)
이희백(의 55)
장대홍(공 65)
장석주(의 47)
장현길(공 60)
전병택(상 65)
정영자(사 56)
최준한(농 58)

유타

김인기(문 58)

조지아

김기춘(공 61)
김영서(상 54)
김중구(수 73)
김학래(공 60)
김현희(간 59)
노한순(농 56)
서광모(공 65)
송용택(의 57)
오경호(수 60)
이종석(의 54)
임수암(공 62)
임한웅(공 60)
정선헌(공 65)
한성수(의 54)

캘리포니아

김기현(문 52)
마동일(의 57)
이종영(음 58)
한광수(의 57)

커네티컷

김기훈(상 56)
라찬국(의 57)
신경호(의 57)
최창송(의 52)
홍성휘(공 56)

콜로라도

이정화(의 61)

테네시

김경덕(공 75)
서갑식(공 70)

텍사스

김장환(공 81)
박영규(사 66)
박유미(약 62)
박태우(공 64)
송요한(문 73)
유헌(농 56)
윤영주(문 60)
이석호(농 78)
전중희(공 56)
조진태(문 57)
진기주(상 60)
천양곡(의 63)
황명규(공 61)

플로리다

김동환(문 53)
김성준(의 55)
김중권(의 63)
박창익(농 64)
오석일(의 64)

이정필(의 58)
임필순(의 54)
정의철(의 55)
조동건(공 69)
최준희(의 58)

필라델피아

강준철(사 59)
김경희(생 71)
김국간(치 64)
김규하(상 63)
김순주(치 95)
김영우(공 55)
김정호(공 68)
김재술(약 58)
김진우(공 62)
김현영(수 58)
배성호(의 65)
서의원(공 66)
서종민(공 64)
성기호(상 59)
성정호(약 59)
손재욱(생 77)
송성규(공 50)
신선자(사 60)
신성식(공 56)
심영석(공 76)
안세현(의 62)
엄종열(미 61)
오진석(치 56)
유영걸(의 70)
윤경숙(문 59)
윤정나(음 57)
이규호(공 56)
이만택(의 52)
이문호(공 53)
이성숙(생 74)
정덕준(상 63)
조영호(음 54)
조정현(수 58)
조화연(음 64)
주기목(수 68)
지흥민(수 61)
진병학(의 57)
최종무(상 63)
최현태(문 62)
한동휘(문 57)
한웅오(대 70)

하와이

김달욱(사 45)
김용진(공 50)
박성재(상 57)
안은식(문 55)
이재형(수 61)
하인환(공 56)
최경윤(사 51)

하트랜드

김경숙(가 70)
오태호(의 56)
이상강(의 70)
정민재(농 70)
최은관

휴스턴

김영일(의 55)
김충열(의 56)
박석규(간 59)
유한창(공 69)
이길영(문 59)
최관일(공 54)
최성호(문 58)
최용천(의 53)

룩키마운틴스

이경화(공 56)
전남민(사 72)

애리조나

진명규(공 70)

알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말일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30@gmail.com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우크라이나 기부금 2021.7.1 - 2023.6.30

일반후원금

남가주	
강신용 (사73)	200
강효남 (공67)	1,000
구철희 (의78)	125
권기상 (대72)	105
권봉성 (문 64)	1,000
김경무 (공69)	2,000
김기형 (상75)	1,400
김난영 (공53)	200
김동석 (음64)	200
김병연 (공68)	1,200
김상찬 (문65)	6,000
김새담 (법55)	25
김영 (수63)	500
김영 (사60)	200
김영웅 (치66)	75
김영희 (간54)	50
김은숙 (미62)	1,000
김은중 (상59)	400
김종철 (문66)	100,000
김종표 (법58)	200
나두섭 (의66)	200
노명호 (공61)	50,000
노진철 (사70)	200
박용필 (문66)	1,000
박우선 (공57)	500
박원준 (공53)	200
박은숙 (미62)	200
박정모 (문66)	1,000
박종수 (수58)	12,000
박혜란 (음72)	300
방석훈 (농55)	500
서치원 (공69)	10,000
성주경 (상68)	200
송영두 (공59)	200
신영찬 (의63)	200
안혜정 (생77)	200
오윤표 (음56)	200
오찬수 (약57)	200
오홍조 (치56)	1,050
유의명 (의62)	200
이건일 (의62)	200
이명선 (상58)	500
이범식 (공61)	575
이병준 (상55)	3,000
이소희 (의61)	75
이장길 (치63)	50
이창신 (법57)	500
임낙균 (약64)	1,000
임춘택 (사68)	500
장동석 (문66)	200
전낙관 (사60)	75
전원일 (의77)	75
정관희 (의65)	10,000
정동주 (생72)	100
정신 (대92)	1,000
정재훈 (공64)	260
최용완 (공57)	100
최종권 (문59)	220
최진석 (법64)	25
하기환 (공66)	500
한귀희 (미68)	2,000
한홍택 (공60)	200
한기웅 (문65)	200
황현상 (의55)	350
뉴욕	
강에드워드 (사60)	200

강창홍 (의63)	50
고애자 (음57)	50
권영국 (상60)	200
금영천 (약72)	1,000
김명철 (공60)	200
김승호 (공 71)	1,000
김완주 (의54)	75
김은희 (간78)	200
김종원 (사58)	50
김종권 (의63)	200
김준무 (음65)	200
문석면 (의52)	200
박순영 (법56)	75
방준재 (의63)	200
서량 (의63)	75
선종철 (의57)	100
신은남 (농70)	2,400
오동호 (의66)	200
이강홍 (상60)	200
이재덕 (법60)	75
이전구 (농60)	500
조남천 (사59)	350
조태환 (상56)	50
차수만 (약71)	300
최수용 (상55)	500
최한용 (농58)	1,500
최혁 (음72)	200
이승준 (간70)	150
이승공 (의63)	200
정태광 (공74)	100
지홍민 (수61)	200
진병학 (의57)	100
손재옥 (생77)	200
미네소타	
문성인 (공88)	50
네바다	
정상진 (상59)	350
미시간	
김희주 (의62)	225
오동환 (의65)	400
윤효윤 (의56)	200
이성길 (의65)	100
이정화 (음56)	200
이재승 (의55)	75
뉴잉글랜드	
윤상래 (수62)	500
박영철 (농64)	100
박종승 (의56)	200
정선주 (간68)	100
주창준 (의50)	200
북가주	
부영무 (치72)	200
이관모 (공55)	200
최경선 (농65)	1,000
한만섭 (문48)	500
한상봉 (수67)	500
황만익 (사59)	200
샌디에고	
이휘영 (법59)	75
임춘수 (의57)	200
플로리다	
김종권 (의63)	200
오석일 (의64)	200
임필순 (의54)	200
정의철 (의55)	200
조경호 (의66)	200
하트랜드	
고 차봉희 (의51)	500

이상강 (의70)	21,000
최은관	500
오레곤	
김상순 (상67)	200
박희진 (농78)	300
하와이	
김용진 (공 50)	100
시카고	
김현주 (문61)	100
소진문 (치58)	400
이영섭 (수56)	75
이용락 (공48)	1,000
임영신 (의56)	100
정의철	250
최희수 (문67)	200
한경진 (상59)	200
텍사스	
박영규 (사66)	200
이석호 (농78)	200
진기주 (상60)	500
황명규 (공61)	200
필라델피아	
윤경숙 (문59)	200
이만택 (의52)	400
이성숙 (생74)	200
이승공 (의63)	200
정태광 (공74)	100
지홍민 (수61)	200
진병학 (의57)	100
손재옥 (생77)	200
워싱턴	
민영기 (공65)	75
이명자 (간74)	800
조지아	
정양수 (의60)	25
김용건 (문48)	200
송용덕 (의 57)	200
워싱턴DC	
강길중 (약69)	500
고무환 (법57)	200
권철수 (의68)	200
김동훈 (법56)	200
김응환 (치88)	200
남국현 (경84)	1,000
박은희 (미68)	100
박평익 (농69)	900
박홍우 (문61)	200
변광록 (간72)	200
백순 (법58)	200
서윤석 (의62)	200
석균범 (문61)	200
석보환 (사68)	200
오인환 (문63)	600
유영준 (의70)	175
이건형 (수54)	25
이내원 (수58)	75
이선구 (문65)	275
이연주 (치88)	200
이영록 (공59)	200
정평희 (공71)	200
조화유 (문61)	75
테네시	
김경덕 (공 75)	100
캐롤라이나	
한광수 (의57)	500

커네티컷	
김기훈 (상56)	200
최창승 (의52)	500
캐나다 밴쿠버	
장희순 (문75)	388
애리조나	
진명규 (공70)	200
광고후원금	
남가주	
강호석 (상81)	240
고석자 (인72)	600
김경무 (공69)	640
김양희 (음77)	3,700
김원택 (공65)	480
김은중 (상59)	600
김자성 (의79)	1,500
김정빈 (공66)	500
나두섭 (의66)	200
나정자 (간70)	400
미주동창회 (11대)	1,000
미주재단	16,000
민일기 (약69)	500
박수경 (생84)	4,500
박재환 (문75)	500
박찬호 (공58)	300
서동영 (사60)	480
서치원 (공69)	2,500
안혜정 (생77)	800
양수진 (간80)	500
이기준 (법54)	500
이명선 (상58)	1,000
이범모 (치74)	250
이병준 (상55)	1,200
이상대 (농80)	240
이원택 (의65)	2,200
이종모 (간69)	480
임춘택 (상68)	400
정인환 (법54)	600
정재훈 (공64)	240
주영세 (사59)	400
차민영 (의76)	7,500
최무식 (약66)	240
최용준 (수81)	400
한효동 (공58)	300
홍훈정 (음70)	400
뉴욕	
김기택 (수81)	240
김승호 (공71)	1500
석창호 (의66)	240
신응남 (농70)	240
이전구 (농60)	240
워싱턴DC	
남옥현 (경84)	9,300
이내원 (사58)	1,000
이태영 (법60)	1,800
모교발전기금	
남가주	
박우선 (공57)	300
박원준 (공53)	700
배병옥 (음 58)	300
이범모 (치74)	200
홍선일 (공71)	100
조지아	
한성수 (의54)	200

샌디에고	
임춘수 (의57)	200
워싱턴DC	
권철수 (의68)	100
최재귀 (미63)	300
워싱턴주	
이원섭 (농77)	150
오레곤	
김영자 (간)	100
플로리다	
오석일 (의64)	100
필라델피아	
손재옥 (생77)	100
하트랜드	
김시근 (공72)	100
장학기금	
남가주	
박원준 (공53)	300
이범식 (공61)	100
전상옥 (사52)	100
한홍택 (공60)	50,000
뉴욕	
선종철 (의57)	100
신은남 (농70)	200
이강홍 (상60)	500
미시간	
이정화 (음66)	175
북가주	
신규영 (공64)	200
시카고	
김현주 (문61)	100
이용락 (공48)	300
최혜숙 (의53)	100
커네티컷	
故유시영 (문68)	10,000
워싱턴 DC	
오인환 (문63)	175
유영준 (의74)	100
조지아	
이종석 (의54)	200
필라델피아	
손재옥 (생77)	100
윤경숙 (문59)	100
유영걸 (의70)	200
Brain Network	
시카고	
이용락 (공48)	200
조종행 (의63)	100
필라델피아	
손재옥 (생77)	100
워싱턴 DC	
서휘열 (의57)	300
지부분담금	
샌디에고	
뉴욕	3,000
뉴잉글랜드	1,000
워싱턴DC	2,000

필라델피아	1,000
시카고	2,400
워싱턴	800
조지아	800
오레곤	300
플로리다	600
오하이오	300
알래스카	200
남가주	3000
캐롤라이나	200
하와이	300
미네소타	600
Charity Fund(나눔)	
남가주	
이범식 (공 61)	100
임낙균 (약 64)	3850
뉴욕	
차수만 (약71)	500
필라델피아	
손재옥 (생77)	100
시카고	
강영국 (수 67)	100
우크라이나 기부금	
남가주	
구상선	50
노명호 (공 61)	1,000
유의영	100
이정남	200
이호진 (간74)	100
서진 (간56)	3,000
안혜정 (생77)	300
한홍택 (공60)	1,000
홍종화 (약74)	500
북가주	
이창우 (문72)	100
뉴욕	
민준기 (공59)	100
조상근 (법69)	1,000
조지아	
김용건 (문48)	200
유성무 (상66)	300
오레곤	
한영준 (사60)	100
워싱턴DC	
최재귀 (미63)	200
커네티컷	
유시영 (문68)	500
워싱턴	
이길송 (상57)	100
시카고	
김신웅 (생59)	300
재환수 (사61)	200
휴스턴	
진기주 (상60)	1,000
캐나다 밴쿠버	
장희순 (문75)	100
뉴잉글랜드	
윤상래 (수62)	200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 \$200	☐ \$100 (2022.7 - 2023.6)	☐ \$240 (2022.7 - 2023.6)	☐ Scholarship Fund (장학금) \$_____
☐ \$500	☐ \$200 (2022.7 - 2024.6)	☐ \$480 (2022.7 - 2024.6)	☐ Charity Fund (나눔) \$_____
☐ \$1,000			☐ Brain Network 후원금 \$_____
☐ \$_____	☐ \$3,000 이상 (중신이사회비)	일반 광고 문의: snuaausa30@gmail.com	☐ 모교발전기금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크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중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_____.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보낼 곳: SNUAA-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Tel: (213)908-5586 | Email: snuaausa30@gmail.com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가 바뀔경우에만 기입 바랍니다.			
주소:				

제16대 미주동창회

회장 노명호(공)
상임고문: 김종섭(문),
고문: 박중수(수), 주종광(약)

차기회장 이상강(의)
명예회장 신응남(농)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중(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정호(공), 이관후(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강호석(상)
총무국장: 이호진(간)
재무국장: 이윤중(미)
IT 국장: 심재호(공)
섭외국장: 안혜정(생)
홍보국장: 김자성(의)

동창회보
발행인: 노명호(공)
편집 고문: 박용필(문), 김정현(공)
편집위원: 김양희(음), 홍선례(음), 이준수(공)
장민구(공), 한정희(미), 허유선(가)

장학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한홍택(공), 황경순(공), 강호석(상),
남성우(공), 김태환(자), 홍주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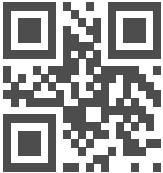
회칙위원회
위원장: 김병연(공)
위원: 김용현(상), 김지영(사), 성주경(상),
이민언(법), 조화연(음), 최경선(농), 최진석(법),
한재은(의)

포상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경무(공)
김영태(미)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213)908-5586	이메일 news@snuuaa.org	웹사이트 www.snuuaa.org
주소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2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uausa30@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박제환(문리 75) T: (323)229-3369
jaycpa2000@gmail.com

차기 회장 김경무(공대68) T: (213)210-1110
kyungmookim@yahoo.com

북가주 SAN FRANCISCO (Jan~Dec)

회장 최경선(농대 65) T: (408)621-8080
kschoi@comcast.net

차기 회장 김범섭(공 79)

샌디에고 SAN DIEGO (Nov~Oct)

유재호(공대 90) T: (469)387-7922
blue9071@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회장 임현민(공대 84) T: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mrmsft@hot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회장 성낙길(문리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차기 회장 전수진 T: (808)956-8283
soojin@hawaii.edu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김순기(치대 82)
EricSophia@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록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장희순(문리 75) T: (236)513-0376
p21.snuainvan@gmail.com
sphro17@gmail.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종기(공대 70)
T: (403)617-7585

미시간 MICHIGAN (Jan~Dec)

회장 이광진(공 81), 248-595-2836
kmikelee@umich.edu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회장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황치룡(문리 65) T: (224)334-1224
chi.whang@gmail.com

차기 회장 조규승(문리 72) T: (847)922-4089
kscho@magicchef.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회장 임영호(공대 72) 978-490-0118
Ynghlim@yahoo.com

차기 부장 최진민(공대 71) T: (617)877-0387
jinchoi52@gmail.com

뉴욕 NY/NJ (July~Jun)

회장 금영천(약대 72) T: (718)791-4397
yckum52@gmail.com

차기 회장 윤영재(공대 74) T: (201)233-7108
jayeon@gmail.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회장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버몬트 VT

박용해(상대 83) T: (203)767-8187
yhptax@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회장 이종태(사대 71) T: (267)266-2881
leejt53@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테네시 TENNESSEE (Jan~Dec)

김상호(공대 86) T: (856)386-1094
kimsh@ornl.gov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510-9196
snuarizona@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배혜영(음대 79) T: (678)943-9043
lhybae@gmail.com

캘리포니아 CALIFORNIA (Jan~Dec)

최희덕(사대 68) T: (973)610-5857
heeduklee@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최희덕(사대 68) T: (973)610-5857
heeduklee@gmail.com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임소연(음대 91) T: (785)764-6985
syounchun@gmail.com

휴스턴 HOUSTON (Jan~Dec)

구자동(상대 70) T: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새로운 도약 당신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이어갑니다 SNU이음장학금으로 당신의 마음을 이어주세요

SNU이음장학금은 경제 형편이 어려운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해외 견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2기 장학생들이 미국 방문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동문 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바로보기



SNU이음장학생 1기 이야기 (2022년 미국 방문)



SNU이음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의 해외 방문을 지원합니다



해외에서 견문을 넓히고
꿈에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더 큰 꿈으로 나아가는 길



당신의 마음을 이어주세요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단 참여신청서 작성 후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america@snu.ac.kr 로 메일 보내주세요
담당자가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SNU 이음장학금 간단 참여신청서 [EUM23-01]

성명: _____ 연락처: _____
학과(특별과정): _____
약정금액: _____

Pay to the order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J | 222 Bridge Plaza South Suite 720' Fort Lee' NJ 07024 Tel +1-212-768-9144 Fax +1-212-768-4494 E-mail kenneth@klcpagroup.com

LA |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1-213-435-1974 E-mail america@snu.ac.kr

SEOUL | SNU Research Park Main Building,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Tel +82-2-871-8004 E-mail snuf@snu.ac.kr

www.Seoulmedicalgroup.com

차민영(의대 76)

빠르고
정확한
리퍼!

메디케어 HMO 주치의 선택은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 선생님!
빠르고 정확한 리퍼로 꼭 필요한 전문의를
찾아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하시는
어르신들이 진정한 건강 영웅입니다!

메이저리그 코리안 특급
박찬호

시니어 여러분들이
건강영웅!

※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환자는 아니며 서울 메디칼 그룹의 모델들임을 알려드립니다.